

서북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019. 11.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제 출 문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위탁한 「서북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1.

- 용역수행기관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 책임연구원 위성남
- 공동연구원 오민조, 민성환, 서호성
- 연구보조원 박영민, 부미경, 정문식, 최승우

이 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	1
1. 서론	3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3
나. 조사 범위 및 방법	9
2. 서북권 지역 현황과 주요 의제	10
가. 지역 현황과 특징	10
나. 주요 의제	18
3. 서북권 시민사회 특징 및 현황	20
가.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	20
나. 서북권 시민사회 현황	32
다. 서북권 시민사회 생태계의 주요 특징	51
4. 서북권 시민사회 지원기관 및 자원 현황	53
가. 시민사회 지원기관 현황	53
나. 시민사회 자원 현황	57
5. 서북권NPO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63
가. 핵심 역할	63
나. 기본 요구들	64
다. 구체적 요구들	64
참고문헌	67
별첨자료 1: 마포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68
별첨자료 2: 서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74
별첨자료 3: 은평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77

[표]

<표 1. 서북3구 인구표> - - - - -	10
<표 2. 서북3구 세대별 추이표> - - - - -	10
<표 3. 서북3구 가구 구성표> - - - - -	11
<표 4. 서북3구 연령별 인구분포표> - - - - -	11
<표 5. 2018년 서울시 주택종류별(구별) 통계> - - - - -	12
<표 6. 주택 소유 현황> - - - - -	12
<표 7.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현황> - - - - -	12
<표 8. 2019년도 재정자립도> - - - - -	13
<표 9. 예산총액 및 1인당 할당금액> - - - - -	13
<표 10. 행정구역과 선출직 관련> - - - - -	14
<표 11.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 - - -	16
<표 12.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통계> - - - - -	16
<표 13.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 - - -	17
<표 1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 - - - -	17
<표 15. 서대문지역 비영리민간단체> - - - - -	36
<표 16. 마포 지역 민간단체 및 기업 공간> - - - - -	57
<표 17. 마포 지역 중간지원조직 공간> - - - - -	57
<표 18. 서대문 지역 마을활력소 공간> - - - - -	58
<표 19. 서대문 지역 생활권역별 커뮤니티 공간> - - - - -	58
<표 20. 은평 지역 커뮤니티 공간> - - - - -	59
<표 21. 은평 지역 사회복지시설 현황> - - - - -	61

[그림]

<그림 1.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 - - - - -	3
<그림 2. 은평시민사회 네트워크 분포도> - - - - -	46

0. 요약

이 조사는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서 NPO지원체계 수립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기본 현황과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다.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했다.

첫째는 서북권 지역 현황과 주요 의제를 파악했고,

둘째는 서북권 시민사회 특징 및 현황을 파악했다. 여기서는 지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를 살피고, 현재 지점에서 그 구조와 현황을 살폈다. 지역 시민사회는 단체와 네트워크라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서북권 시민사회 지원기관 및 자원 현황을 살폈다. 여기서는 중간지원조직과 기관들, 그리고 유형무형의 자원들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폈다.

넷째는 서북권NPO지원센터 설립 수요와 요구를 정리했다. 주로 주체의 관점에서의 요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사업의 주요 방식은 활동가들의 공론을 기본으로 했으며, 특히 주민운동(Community)과 시민운동(Advocacy)의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전통적인 ‘국가-시장-사회’라는 세 개의 기둥(Three Pillars)의 관점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영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출발의 기본 시각으로 잡았다. 사실 이러한 시각은 시민사회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범주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사회가 작동하는 모습을 찾기보다는 ‘동 단위’까지 시각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이번 조사활동에서는 이 과제를 다룰 수가 없었다. 단지 ‘지역 시민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성격이 왜 자치구마다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또 하나는 ‘주민’과 ‘시민’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앞으로 전면화될 협치, 자치의 영역에서 지역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전략을 기획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지역 시민활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서북권 시민사회 특징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를 살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구조에 있어서도 지역 시민사회는 ‘단체와 네트워크’라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각 자치구마다 시민사회의 특징과 모습이 다르다. 그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를 연표 중심으로 살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씨줄과 날줄로, 즉 시간적 형성과정과 공간적 구조의 모습을 동시에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살피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객관적 현황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행정 정책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지를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 내부의 요구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를 동시에 살펴야 한다.

결국 지역 현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장 연구는 행정정책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 시민활동의 경험과 과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영역도 중요하다. 현장 연구는 전문 연구자들의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현장 활동가들의 집단적 경험을 일반화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성장이 보장될 것이다.

활동가 역량의 성장과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은 점차 확대되는 주민자치 활동의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의 영역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반면 아직 민간 역량이 많이 부족한 영역이기도 하다.

지역 시민활동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도전해 볼만한 매력적인 과제도 풍부하다. 이는 현재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능동적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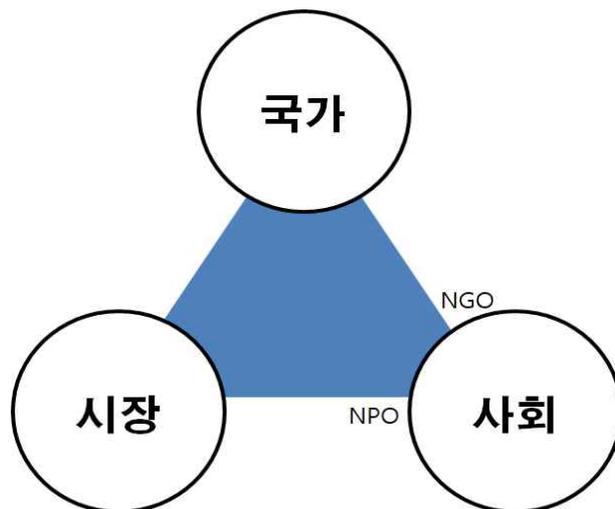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서북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목적은 서북권 NPO지원체계 수립 필요성에 대한 수요 및 공감대를 확인하고 지역 NPO 기초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권역별 시민사회의 현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는 관련된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미흡한데 기인한다. 이 조사가 권역별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사에 앞서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 접근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대상의 범주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요한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다.

세 개의 기둥 : 국가, 시장, 사회

‘국가-시장-사회’라는 세 개의 기둥(Three Pillars)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살필 수 있다.

<그림 1.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



이 ‘세 개의 기둥’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개념에 대한 유래는 통상 ‘칼 폴라니’(Karl P. Polanyi, 1944)로부터 비롯된다. “폴라니는 보편적 시장이란 관념을 비판하고 시장원리를 상대화하여 시장과 비시장(국가)의 중간영역으로서 사

회(society)를 발견한다. 그는 전통, 문화, 관습, 제도, 조직, 커뮤니티(community), 생활경제(economy of livelihood) 등으로 사회란 영역을 설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란 자발적 협력의 조직으로서 가족이나, 혈연공동체와 같은 귀속집단으로서 비공식적 부문(informal sector), 그리고 결사체로서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을 포괄”한다.¹⁾

이러한 ‘사회’란 개념 속에서 ‘시민사회’란 개념을 확장하여 설정한다. 이 시민사회는 NGO와 NPO의 개념으로 연결하여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 혹은 ‘비정부조직’을 말하는데, 이 용어는 UN이 창설된 1945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유엔(United Nations)은 ‘정부간기구’인데, 유엔 창설을 논의하는 자리에 비정부기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²⁾ 오늘날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개념의 형성 자체는 국가 기구에 대비하여 이루어졌다. UN공보국(UNDPI)은 NGO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NGO는 임무(미션)를 지향하며 공동의 이해(Interest)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며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지역사회에서 정치참여를 촉진한다.” 이것은 Three Pillars 중에서 ‘국가’와 관련지은 개념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Three Pillars의 ‘시장’에 대비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NPO는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³⁾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NGO와 NPO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정부기구가 아닌, 영리법인 또는 영리사업자가 아닌 모든 조직일반을 말한다. 그 영역은 사실 광범위하며, 사회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영역(“전통, 문화, 관습, 제도, 조직, 커뮤니티(community), 생활경제(economy of livelihood) 등”)은 엄청나게 많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혁명』에서 이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나게 큰 새로운 분야라고 표현했다.

시민사회의 범주 확장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는 세 개의 기둥의 맥락에서 그 위치와 의미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정 사회에서의 의미는 그 사회가 형성된 구체적인 역사성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온 구체적인 역사가 있으며, 그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를 ‘지역 시민사회’로 구체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형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하나는 ‘관변단체’의 형성과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풀뿌리 주민운동 또는 시민운동의 흐름이다. 관변단체는 지

1) 「IT시대와 국가 - 시장 - 시민사회의 협치」, 중앙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2005년

2) 위키백과.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항목

3) 위키백과. ‘비영리단체’ 항목. <https://ko.wikipedia.org>

역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도 끼치고 있다. 그 형성의 역사도 오래 되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관변단체’는 지극히 한국적 문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까이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국민캠페인이었던 새마을운동에서부터 비롯된다. ‘관변단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민총동원’의 관점에서 위로부터의 국민 조직화 흐름의 맥락 속에서 살필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1월부터 농촌지역에서 새마을가꾸기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직장새마을운동 단계를 거쳐, 1975년 통반장제 실시와 반사회 개최를 중심으로 한 도시새마을운동을 정점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모두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째가 농촌새마을운동이다. 1970년대 전후로 해서 당시 농촌지역은 전근대적 봉건문화와 신분제 질서가 강하게 남아 있었고, 각기 마을은 남성중심의 전통적 의사결정 구조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것은 마을계, 마을회라는 형식으로 존재했고 이곳에서 마을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통적 구조를 새마을운동은 ‘마을회의’라는 전체 운동체계의 하부구조로 편입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연계시켜서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하였다. 권위주의 정부의 ‘조국근대화’ 구호는 실질적으로 ‘백성에서 국민으로’ 재탄생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두 번째는 직장새마을운동이었다. 농촌의 성공모델을 도시로 곧바로 접목하기에 부담이었던 정부는 당시 관치경제의 성격이 강했던 직장(사업체)을 중심으로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었으며, 사업장 단위에서 대규모 조직화가 가능했다. 세 번째는 거주지 단위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도시 거주지를 통과 반으로 구획하고, 각각 책임자를 선정한 뒤 행정조직의 가장 말단에 위치 지었다. 이는 통반과 관련한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통반장을 선임한 뒤에 각 세대주를 ‘반사회’라는 이름으로 묶어 세웠다. 매월 25일은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세대주가 반사회에 참여하는 날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정부에서 필요한 캠페인을 독려하는 주요 단위로 삼았다.⁴⁾ 반사회는 도시지역의 주거지가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는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국가단위 캠페인의 성공을 고착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새마을조직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법인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에도 새로운 국가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1991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바르게살기조직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가 캠페인은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였고,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기초 행정단위에서 이들이 선출직으로 전면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은 이러한 오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체’들이었다.

4) 「박정희 체제의 대중통치: 새마을운동의 구조-행위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재훈(경북대학교), 2004년

둘째로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흐름이다. 이는 강고한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과 사회변혁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담아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1970년대부터 풀뿌리 주민운동의 흐름이 이미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민중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었다. 1970년대 미국의 풀뿌리 커뮤니티운동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주민운동 세력은 도시빈민지역에서 ‘빈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다.⁵⁾ 그러나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주민의 독자적인 활동은 언제나 불온시 되었고,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1970년대 빈민운동은 특히 서울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다.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성동구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조직했으며 1980년대에는 전면 재개발에 따른 철거반대운동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민중운동의 흐름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계급운동’으로 등장하자, 주민운동은 그 내부에서 분열 내지는 분화되기도 했다. 다른 측면으로 1980년대 후반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시민운동’이 등장하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그 출발을 알렸으며, 계급운동 중심의 운동에 대해 반대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서울지역에서는 자치구 단위, 즉 풀뿌리 단위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흐름이 형성된다. 구로시민센터,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등이 그러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전혀 새로운 흐름이 등장한다. 나중에 이른바 ‘생태적 대안사회운동’이라 정의되는 생협, 대안학교, 생태주민운동, 마을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두 흐름의 주체는 ‘지역사회(Local Community)’에 큰 영향을 끼친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현 및 2000년 주민자치위원회의 전국적 실시와 커다란 연관성을 가진다. 관변운동에서 형성된 주민 주체들은 지방자치제와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면적으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동단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대항운동 세력인 풀뿌리 시민운동 세력은 그 존재가 미미하며, 사회적 이슈 분야에 대해서는 커다란 족적을 남겼으나 동단위 지역사회에서는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

여기에서 주요 관심 대상은 ‘지역(Local) 시민사회’에 있다. 이때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 상으로 자치구, 자치군(기초지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치구 단위의 ‘지역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온 역사를 추적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치구 별로 서로 다른 모습의 시민사회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두 번째로 다루어야 할 영역은 ‘지역 시민사회’가 포괄하는 범주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인위적인 관찰자의 시각으로 정리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

5)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서울 D. 알린스키, 아르케, 2008. 이와 관련한 내용은 오재식 선생이 쓴 이 책의 「추천사」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역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관계를 맺어 온 네트워크의 연결 지점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차원의 포괄적 네트워크의 관계망을 살펴야 한다.

마포지역은 ‘모두마포’로 포괄되어 있고, 은평지역은 ‘은평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두 개의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하나는 이러한 포괄적 네트워크의 성격 자체가 행정에서 배분하는 자원을 둘러싼 민간의 대응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이다. 모든 개별적 이슈의 네트워크는 행정의 자원배분과 관련되어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원배분과 관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 또한 민간의 적극적 대응 노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마포’와 ‘은평상상’은 2010년대 민간활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서대문지역에서는 그러한 대응 모색에 단지 성공하지 못했을 뿐 그러한 시도와 노력은 존재했다. 2020년대의 새로운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피고 적극 대응한다면 전혀 새로운 모색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가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범주에서의 활동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에 ‘관변 단체’가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는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실행의지와 상관없이 이를 실행할 만한 주체가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될 기미가 보이는지와 관련된다. 즉 이는 순전히 해당 지역 활동가들의 의지에 따른 사안일 것이다. 시민사회는 자기자신의 고유한 범주가 있고 그에 따라 과정의 역사가 있기 마련이지만,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가에 따라 그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 범주에 관한 문제는 다소 ‘선택’ 사안일 것이다.

2010년대 서울의 모습은 행정의 혁신정책 시행과 중간지원조직 양산, 주민운동 개념의 확장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 속에서 행정 혁신정책의 지속성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했고, 이후 2020년대를 이끌고 갈 새로운 프레임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이후에 지속시켜야 할 논의 지점들이다.

주민과 시민

‘주민’과 ‘시민’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활동 영역과 대상, 계획 설정에 있어서 헷갈리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개념을 크게 보면 ‘시민사회’라는 개념에 모두 포괄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주민활동의 영역과 시민활동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필 수 있다.

먼저 시민활동(또는 시민운동)의 영역은 주로 다중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이거나 공공적 사안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Issue)로 정립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즉 행정의 정책이나 의회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여론에 호소하거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운동, 시민활동은 특정한 사회적 ‘이슈’와 연결된다. 이 ‘이

슈'에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더 나아가 직접 참여하는지 등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이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 그래서 시민운동은 이 '이슈'에 대한 강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주로 시위, 커다란 목소리로 이미지화 된다. 또한 시민운동은 '시민성'과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측면인데, 기존의 전통사회나 문화의 관습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망에서 벗어나 이성적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시민을 '이슈'에 반응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반면 주민활동(또는 주민운동)은 커뮤니티(Community) 개념과 연결된다. 주민(Resident)은 거주지 생활자를 의미하며, 주로 지리적 범주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행정의 개념으로는 주민등록 거주자들을 말한다.⁶⁾ 이는 생활권(生活圈)을 구성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커뮤니티의 개념이며, 특정한 지리적 범주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은 주로 '생활'과 '사람들의 관계망'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다른 측면으로 거주자들은 유권자를 의미하며, 공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보다 '주민'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덜 하다고 할 근거가 전혀 없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거 빈민운동은 정확히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00년대 이후 마을공동체는 이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도시의 많은 인구는 거주지를 동일한 정서적 카테고리 묶을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드러낸다. 세대별, 소득별, 성향별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며, 마을공동체는 같은 지역의 특정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들 '끼리끼리' 동호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이 빈민운동의 성격과는 다른 지점이다.

그러나 NPO 지원의 활동 범주에는 주민과 시민의 활동 영역이 모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영역이 모두 '지역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은 이른바 '시민'의 캐릭터와 '주민'의 캐릭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주민과 시민은 개념적으로 분리될 뿐, 모든 인간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측면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는 이슈에 대한 탁월한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다가갈 수 있다. 즉 주민자치회의 분과모임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때 그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집단은 지역 시민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운동의 역량을 주민자치 활동과 연계하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 주민의 개념은 주민등록 거주자 및 직장 근무자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통반장 라인의 주민들과 직능단체에 포괄되어 있는 주민들을 포함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 조사 범위 및 방법

조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서북권)의 '지역 NPO'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NPO는 각종 주민커뮤니티와 풀뿌리 시민운동단체, 관련 네트워크, 민간위탁 중간지원 조직까지를 포괄한다.

조사는 문헌과 통계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통계 자료는 그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북 3구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였고, 현장 활용의 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그리고 활동가포럼을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활동가 포럼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10월 08일)는 지역 현황, 2차(10월 28일)는 서북 3구별 지역 시민사회의 역사 정리, 3차(11월 12일)는 전체적 접근에 대한 기본 시각에 대한 논의, 4차(11월 18일)는 각 자치구별 내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조사는 아래와 같은 체계로 이루어졌다.

*워킹그룹(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사업 TFT)

- 마포지역 : 위성남, 박영민, 정문식
- 서대문지역 : 오민조, 서호성
- 은평지역 : 부미경, 민성환
- 시민단체 : 최승우

* 조사팀

- 연구책임자 : 위성남
- 공동연구원 : 서호성, 민성환
- 연구보조원 : 박영민, 오민조, 부미경

2. 서북권 지역 현황과 주요 의제

가. 지역 현황과 특징

1) 인구 현황

마포구의 인구는 2019년 현재, 약 173,840세대, 386,000명(남 181,750명, 여 204,220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1일 전입자수는 평균 157.5명이고, 전출자수는 174.5명이어서 2008년 40만 명에서 2017년 38만 5천명으로 10년 동안 총 인구는 소폭 감소하였다. 서대문구의 인구는 약 140,000여 세대, 310,000여명(남 149,061명, 여 161,008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2년 324,733명에서 2019년 2분기에 324,304명으로 인구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은평구의 인구는 약 207,000여 세대, 488,285명(남 235,471명, 여 252,814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4년 508,111명을 정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표 1. 서북3구 인구표>

구분	세대(2019년)	총인구(2012년)	총인구(2019년)	인구감소수	세대별인구수
마포구	174,181	393,576	385,605	-7,971	2.15명
서대문구	140,007	324,733	324,089	-644	2.21명
은평구	207,410	505,902	486,159	-19,743	2.32명

(* 「2019년3/4분기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특별시)

이러한 인구 현황에 각 세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3개 구에서 동일하게 인구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마포구의 경우 2014년 전체 167,305세대에서 2019년 174,181세대로 6,876세대 증가하였고, 서대문구는 135,563세대에서 140,007세대로 4,444세대 증가하였으며, 은평구는 202,366세대에서 207,410세대로 5,044세대 증가하였다. 이는 1인 세대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서북3구 세대별 추이표>

구분	2014년		2019년 3/4분기		세대 증감
	전체 세대	1인세대	전체 세대	1인세대	
마포구	167,305	68,490	174,181	77,879	△6,876
서대문구	135,563	53,842	140,007	58,620	△4,444
은평구	202,366	67,378	207,410	76,273	△5,044

(* 「2019년3/4분기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특별시)

이를 가구 개념으로 다시 살펴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마포가 36.7%, 서대문이 35.2%, 은평은 27.0%를 보이고 있다. 이를 1인가구와 2인가구를 합친 소가구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마포가 61.8%, 서대문이 60.2%, 은평이 54.9%를 차지하여서 지역 활동을 기획할 때에 1인가구 및 소가구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표 3. 서북3구 가구 구성표>

구분	전체가구수	1인가구(비율)	2인가구(비율)	1인+2인가구 비율
마포구	154,940	56,837(36.7%)	38,861(25.1%)	61.8%
서대문구	127,197	44,795(35.2%)	31,734(24.9%)	60.2%
은평구	181,338	48,888(27.0%)	50,617(27.9%)	54.9%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8년 서울시가구원수별가구수(구별) 통계)

이를 노령화지수(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전체의 노령화지수⁷⁾는 140.4%이다. 마포구는 126.9%이고, 서대문구는 163.0%이며, 은평구는 158.3%이다. 서대문구가 상대적으로 노령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서북3구 연령별 인구분포표>

구분	14세 이하(비율)		15세~64세(비율)		65세 이상(비율)		노령화지수
서울시	1,040,602	10.7%	7,238,336	74.3%	1,461,460	15.0%	140.4%
마포구	40,683	10.9%	281,318	75.3%	51,628	13.8%	126.9%
서대문구	31,461	10.1%	227,337	73.3%	51,271	16.5%	163.0%
은평구	50,412	10.5%	351,469	73.0%	79,782	16.6%	158.3%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9년3/4분기 서울시주민등록인구(연령별/구별) 통계)

2) 주택유형

거주지의 주택유형은 마포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단연 높게 나타난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이 저층밀집지구이고, 서대문의 경우 연희동을 비롯하여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고층밀집지구와 저층밀집지구의 경계는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된다. 고층인지 저층인지 주택유형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지역활동의 방식에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다.

7) 노령화지수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반면 UN이 정한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지수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표 5. 2018년 서울시 주택종류별(구별) 통계>

구분	주택수	아파트(비율)		연립/다세대주택(비율)		단독주택(비율)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서울시	2,894,078	1,679,639	58.0%	862,343	29.8%	322,453	11.1%
마포구	118,619	66,582	56.1%	38,230	32.2%	12,225	10.3%
서대문구	94,884	48,277	50.9%	32,269	34.0%	13,378	14.1%
은평구	144,611	52,607	36.4%	74,687	51.6%	16,000	11.1%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8년 서울시주택종류별(구별) 통계)

또 하나의 특징은 가구의 주택소유율을 보면, 자치구별 차이가 드러난다. 마포구의 경우 45.3%로 주택소유율이 가장 낮다. 이는 소가구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특성이 보여주듯이 주거 임차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장 높은 주택소유율을 보이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 이와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6. 주택 소유 현황>

구분	총 주택수	비거주자 소유주택	주택소유가구(B)	총 가구수(A)	가구의 주택소유율(B/A)
서울시	2,866,845	991,656	1,875,189	3,813,260	49.2%
마포구	118,355	49,090	69,265	152,814	45.3%
서대문구	94,398	32,072	62,326	126,672	49.2%
은평구	143,727	46,452	97,275	179,641	54.1%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7년 서울시주택소유현황 통계)

3) 행정 현황

마포구청의 전체 공무원 인원은 1,412명이며, 공무원 1인당 마포구민 담당인구는 273.6명이며, 서대문구는 251.6명이고, 은평구는 353.4명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표 7.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현황>

구분	인구	공무원(정원)	
		공무원(정원)	공무원1인당 담당인구
서울특별시	10,049,607	52,294	192.2
마포구	386,359	1,412	273.6
서대문구	323,080	1,284	251.6
은평구	487,666	1,380	353.4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8년 서울시공무원1인당담당인구 통계)

재정자립도⁸⁾는 은평구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인구나 부족한 공무원, 낮은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구 1인당 자치구 예산금액을 살펴보았을 때도 역시 은평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표 8. 2019년도 재정자립도>

구분	재정자립도
서울시 평균	76.5
노원구	15.4
마포구	30.7
서대문구	24.1
은평구	17.5
서초구	53.3
강남구	54.4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9년 서울시재정자립도 통계)

<표 9. 예산총액 및 1인당 할당금액>

구분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인구	1인당 예산액
마포구	679,344	386,359	1,758,323
서대문구	599,956	323,080	1,856,989
은평구	803,633	487,666	1,647,917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8년 서울시예산결산총괄 통계를 기준으로 재작성)

행정구역과 인구 및 선거인수는 서로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았다. 인구는 들고남이 있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변동을 하지만, 한번 정해진 제도는 비교적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남이 발생하는 것 같다. 서대문구는 인구에 비해 마포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거지역이 저층밀집지구로서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비교적 오래되어서 그 관계망이 좀 더 촘촘할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또한 은평구의 경우 인구대비 기초의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재정자립도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이며,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행정구역과 선출직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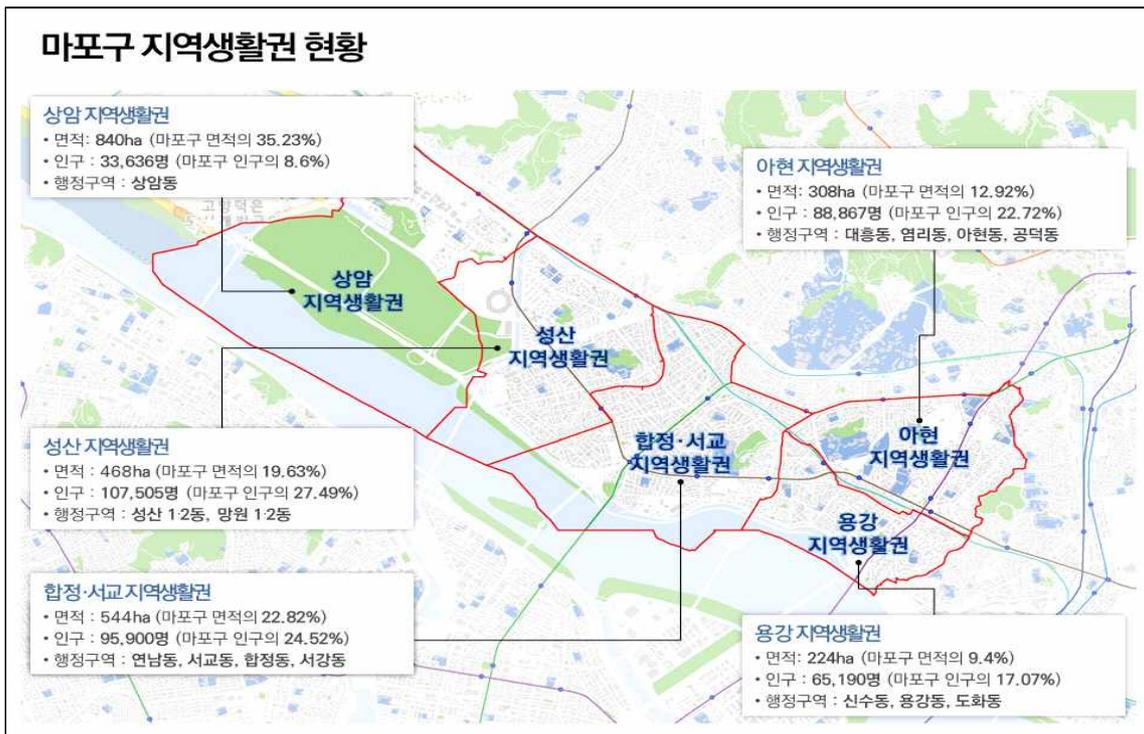
구분	행정동	통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인수	투표율	의원1인당 선거인수
마포구	16	418	4	18	320,091	61.6	17,783
서대문구	14	514	4	15	269,182	60.9	17,945
은평구	16	561	4	19	413,112	57.7	21,743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의 데이터에서 재구성)

4) 지역생활권 현황

‘생활권(生活圈)’이란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를 말한다.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보다 촘촘한 계획을 말한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권’별로 분류하여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⁹⁾

이 생활권계획에 따르면, 마포구는 다섯 개의 생활권으로 나뉜다. 이 생활권은 거주지나 용도별 특징에 따른 구분으로서 지역활동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의 생활권은 4개로 나뉘는데, 생활권역별로 특징이 뚜렷하고 경계가 분명하여 지역활동의 집중점이 약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안산, 백련산, 북한산 등 자연 녹지가

9) 『2030 서울생활권계획』, 서울특별시(<http://planning.seoul.go.kr>), 2017

주거지역 중간에 배치되어 있어 생활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은평구의 생활권역은 5개로 나뉘며, 진관지역생활권의 특징이 다른 권역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진관동은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 조성된 뉴타운지역으로서 외부 이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전체 거주인구 대비 수급자수의 비율을 보면 마포구가 2.1%, 서대문구가 2.7%, 은평구가 4.0%로 나타난다. 이는 서울시 평균 2.9%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은평구가 훨씬 높다.

<표 11.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¹⁰⁾ 현황>

구분	총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시설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시설	인원
서울시	197,278	604	290,222	169,271	227,396	23,360	44,271	4,647	6,324	604	12,231
마포구	5,550	15	8,206	4,572	6,197	887	1,574	91	120	15	315
서대문구	6,014	23	8,820	5,227	6,774	651	1,124	136	172	23	750
은평구	11,876	43	19,677	10,095	14,451	1,430	2,773	351	475	43	1,978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8년 서울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별) 통계)

공공도서관의 현황은 마포구가 단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 방문자수도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19세 이하 인구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3개 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표 12.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통계>

구분	개소	도서관 방문자수	예산(백만원)
서울시	173	66,955,435	150,596
마포구	6	4,047,530	12,583
서대문구	4	1,568,025	4,385
은평구	7	2,517,939	7,382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8년 서울시공공도서관(구별) 통계)

6) 자원봉사자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주민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다. 10대와 20대의 자원봉사자들은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감안했다. 10대와 20대의 자원봉사자들은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감안했다. 10대와 20대의 자원봉사자들은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감안했다. 10대와 20대의 자원봉사자들은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감안했다.

10)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로 구분한다. 일반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며, 특례수급자는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을, 시설수급자는 보장시설(급여지급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한다.

참여비율은 서울시 전체는 13.0%이며, 마포구가 16.3%로 가장 높으며, 은평구 13.9%, 서대문구 10.9% 순이다. 이와 반대로 50대 이상 세대의 참여율을 종합하면 서대문구가 21.0%로 가장 높으며, 은평구 20.3%, 마포구 17.7% 순이다. 이는 65세 이상의 비율인 노령화지수와 같은 순위(마포 126.9%, 은평구 158.3%, 서대문구 163.0%)를 나타내어 인구 구성의 성격이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서울시	2,291,323	643,545	658,576	215,595	297,164	225,092	143,596	107,755
마포구	82,758	22,495	24,436	7,694	13,461	7,397	3,955	3,320
서대문구	80,182	19,980	28,060	6,565	8,742	7,138	4,767	4,930
은평구	107,771	35,027	26,714	9,218	14,930	10,865	6,363	4,654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018년 서울시자원봉사자등록 현황)

7)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비영리민간단체(NPO)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 단체들은 해당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풀뿌리형 단체가 있고, 사무실은 자치구에 있으되 활동은 주제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단체가 뒤섞여 있다. 마포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은 지리적 교통편의 때문에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국단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포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보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등록단체 수	
마포구	210개
서대문구	89개
은평구	99개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8) 서북권의 특징

일반적으로 거주자 분포가 주민의 성격(토착민, 이주민, 유목민)과 연동되어 그 구분이 드러날 경우 각종 사회적 지표 또한 이와 연관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마포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은평구에 비해 거의 10%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후 마포지역활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대문지역의 경우 노령화지수가 1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마포구 126.9%), 자원봉사자 참여 현황에 있어서도 50대 이상 세대의 참여율이 서대문구에서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마포구는 17.7%로 가장 낮았다. 주거지 유형을 알 수 있는 주택유형의 경우 고층밀집지구와 저층밀집지구의 차이가 은평구와 마포구에서 정반대로 나타났다. 마포구의 경우 아파트 비율이 56.1%이며 저층(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비율이 42.5%임에 반해, 은평구의 경우 아파트 비율이 36.4%이며 저층의 비율이 62.7%에 이르렀다. 은평구의 경우 진관동 뉴타운지역을 제외하면 저층밀집지구의 성격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구와 주거지의 특성은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 이동이 높은 마포지역의 경우 청년층과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도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은평구의 경우 전통적 풀뿌리 활동이 매우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의 배경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서대문구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을 보더라도 가장 낮으며, 40대의 자원봉사자 참여 현황에 있어서도 낮게 나타난다. 이는 서대문지역의 생활권 중 ‘충정지역생활권’과 ‘신촌지역생활권’, ‘홍제지역생활권’과 ‘가좌지역생활권’이 분리되어 나타난 지리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나. 주요 의제

서북권은 인구구성과 지리적 환경, 주거지의 특성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 쪽에서는 신촌과 홍대앞, 상암동처럼 새로운 문화산업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전통적 저층밀집지구의 지역 커뮤니티가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는 2014년에 서울시에서 작성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서북권의 기본 발전방향을 “창조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설정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창조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별 계획과제

중심지

- 미래산업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중심지 기능강화
- 지역중심지 기능강화

주거지

-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
- 주민의사를 고려한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

교통

- 지역간연계 강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
- 남북교류에 대비한 교통체계 정비

생활기반

- 도시기반시설 상부의 공원화
- 수변공간의 활용도 제고 및 생태하천복원

지역특화

- 지역자원의 연계·육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 출처 : 「2030 서울생활권계획, 권역생활권계획-서북권」)

이는 권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나의 맥락 속에서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의 주민/시민역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포함하고 있다. 반대로 민간의 시각에서 보면 자치구 단위를 뛰어넘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흐름과 성격을 반영하여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서도 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 중에서 “문화와 경제의 융합, 컬처노믹스 은평 : 수색역과 DMC역을 불광천과 연계하여 방송문화 랜드마크 거리 조성”이 있고,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공약 중에서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육성, 유망중소벤처 발굴로 일자리 확대”가 있으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공약 중에서는 “문화가 숨쉬는 문화벨트 조성 : 신촌바람산, 안산자락길, 서대문형무소 등 3대 벨트 조성”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에 관한 아이디어는 모두 서북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 그 실효성을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간의 동력과 연계를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 ‘경제’, ‘관광’, 활력, 연결, 창의력은 모두 민간활동의 역량과 연결되어야 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권으로서 ‘서북권’은 그 동안 자치구 단위로 생각하였던 민간활동도 이제는 자치구간 민간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활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다도 그 동안 자치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의 칸막이 현상도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사실 민간의 칸막이 현상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자치구간, 자치구 내부의 각 활동 영역간에 있는 민간 칸막이 현상은 시야를 좁은 곳으로 가두어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3. 서북권 시민사회 특징 및 현황

가.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

1) 마포구 시민사회의 역사

○ 새로운 흐름의 등장 : 1994~2003년

- 1994년 08월 : 공동육아협동조합 '신촌우리어린이집'이 연남동에서 개원했다. 한국에서 최초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이후 성산동으로 옮겼다.
- 1995년 08월 : 공동육아협동조합 '날으는어린이집'이 합정동에서 개원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이후 연남동으로 옮겼다.
- 1999년 01월 : '풀잎새방과후'가 서교동에서 개원했다. 이 또한 최초의 협동조합형 방과 후교실이었다.
- 1999년 09월 : '도토리방과후'가 동일한 협동조합형으로 성산동에서 개원했다.
- 2000년 07월 : 마포두레생협 발기인대회가 약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당시만 해도 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다.
- 2001년 03월 : 홍대앞에 산재한 클럽을 대상으로 '클럽데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본격 '홍대앞'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 2001년 08월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성미산 정상부에 '배수지'를 건설하고자 했고, 이에 반대하여 '성미산지킴이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3년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서울시가 사업을 전면 보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미산마을'이 널리 알려졌다.
- 2001년 09월 : '독립예술제2001'(나중에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홍대앞에서 개최되었다. 홍대앞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2002년 06월 : 한국에서 최초로 홍대앞에서 '프리마켓'이 시작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홍대앞 공원에서 진행되었다. 그 후 약 10년 뒤에는 전국에서 프리마켓이 일반화 되었다.
- 2002년 06월 : 지방선거에 구의원후보로 서교동, 성산동, 연남동 3인이 출마하였다. 이들은 각기 홍대앞 문화예술인과 성미산지킴이들로서 정치적 진출의 필요성을 느껴 출마를 하게 되었으나,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 2003년 11월 : 성미산지킴이운동이 서울시로부터 승리하여 마을잔치를 열었다.

[요약]

새롭고도 다양한 실험이 등장했다. 협동조합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했고, 홍대앞을

둘러싸고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특히 협동조합의 실험을 토대로 자생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등장했으며, 이를 둘러싸고 지역적 네트워크가 비교적 활발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 연결되고 있으며, 마포지역의 특색을 구성하고 있다. 홍대앞은 문화예술인들의 집중적 활동장소로서 기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확장 : 2003~2013년

- 2003년 11월 : 풀뿌리 시민단체인 ‘참여와자치를위한 마포연대’ 발기인대회가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는 마포지역의 여러 신진세력들이 결집하는 단위가 되었다.
- 2004년 05월 : 마포지역축제 개최, 마포연대 주최로 성미산마을과 지역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축제를 개최했다. 이후 2006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었다.
- 2004년 09월 : 미인가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가 성산동에서 개교를 했다. 이 학교는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직접 건립하였다.
- 2005년 07월 : 공동체라디오 마포FM이 개국을 했다.
- 2005년 08월 : 홍대앞 인디밴드 카우치가 생방송(MBC 음악캠프) 도중 성기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중영되었고, 인디문화가 논란에 휩싸였다.
- 2005년 09월 : 제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홍대앞에서 시작하였다.
- 2006년 03월 :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이 마포에서도 시작되었다. 이는 주민청원운동으로서 차지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례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 2007년 06월 : 성미산마을축제가 한강 시민공원이 아닌 성산동 망원로 일대에서 거리축제로 개최되었다. 이는 성미산마을 주민들의 주최하는 행사였으며, 성미산마을이 급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2007년 07월 : 상암동 이랜드 매장의 비정규직원들이 해고에 반대하여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지역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였다. 결국 파업은 성공하였다.
- 2008년 02월 : 마포민중의집이 망원동에서 문을 열었다. 노동조합과 노점상 조직 등 전통적 사회운동 세력들과 연결하여 지역거점 공간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취지였다.
- 2009년 05월 : 고노무현대통령이 서거하자 성산동 골목내에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였다. 많은 인근 주민들이 분향하였다.
- 2010년 01월 : 성미산마을에서 주민후보로 구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많은 득표를 하였으나, 당선은 하지 못했다.
- 2010년 04월 : 마포지역 성소수자들의 조직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출범했다.
- 2010년 04월 : 주민참여정치를 위한 공동선거본부가 발족했다. 마포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참여하였고,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진

행했다. 이 공선본 후보 중에서 1명의 구의원이 당선하였다.

- 2011년 06월 : 홍대앞 두리반식당이 철거반대 싸움을 장기간 진행하였고 마침내 승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홍대앞 인디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두리반이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
- 2011년 07월 :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이 염리동에서 창립을 하였고, 카페 공간의 문을 열었다. 이곳은 두리반철거반대 싸움에 참여하였던 홍대앞 청년그룹과 2010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고 참여하였던 민주노동당의 일부 그룹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었다.
- 2011년 08월 : 홍대앞 견고싶은거리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마포구청의 정책에 반대하여 인근 상인회와 민중의집 등 지역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주차장 건설 계획은 철회되었다.
- 2011년 12월 : 홍익대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여 파업에 나섰다. 이에 서울지역 시민들과 마포지역의 여러 단체들, 성미산마을 주민들이 지지하였고,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졌다. 오랜 싸움 끝에 청소노동자들이 승리하였다.
- 2012년 06월 : 상암동 홈플러스가 합정동 지하상가에 추가 매장을 만들고자 하자, 이에 대한 반대투쟁이 망원/월드컵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겨나는 것은 대자본의 횡포이며, 상인 생존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다. 지역단체들이 반대하였고, 성미산마을은 개인현수막을 길거리에 붙이는 등으로 지지하였다. 결국 홈플러스와 상인회 사이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 2013년 07월 : 홍대앞에서 쿼어축제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집과 홍대앞 견고싶은거리상인회가 서로 협력하였다.

[요약]

2000년대 10년 동안 각기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다양한 흐름이 점차 연결되기 시작했다. 2003년도 풀뿌리 시민단체로 출발한 '마포연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흐름이 구체적인 이슈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연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미산마을이 등장했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만들어졌으며, 2008년도 민중의집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운동과 상인회가 연결되고 지역의 커다란 이벤트가 기획되었다. 또한 2010년대 초에 등장한 홍대앞 두리반철거반대, 견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반대, 홈플러스입점반대 등 대형 갈등 이슈가 등장했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 새로운 진출 : 2013~2019년

- 2013년 04월 : 마포마을넷이 창립했다. 이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민간차원에서 이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 2013년 06월 : 중간지원조직인 마포구 사회적경제조성사업단이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

터의 위탁으로 출발했다.

- 2013년 10월 : 공덕역 인근 경의선 폐선 유희부지에 '마포구사회적경제조성사업단'이 주도하여 '늘장' 공간을 조성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대안장터로 기획되었다.
- 2013년 11월 : 서교예술실험센터가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유지되다가, 사업 종료가 임박하자 폐관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계기로 홍대앞 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홍대앞의 여러 세력들이 공론장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홍우주문화에술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 2014년 04월 : 중간지원조직인 마포구 마을공동체조성사업단(일명 다정한사무소)이 출발하였다.
- 2014년 05월 : 세월호사건에 대한 애도 및 진상규명을 위한 '개인 현수막달기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2014년 05월 : 지역생활정치를 실험하고자, '마포파티'를 출범했다. 6월 지방선거에 마포파티 후보로 4명의 구의원 후보를 내세웠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 2014년 08월 : 홍대앞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 2015년 11월 : 마포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이슈화 되자, 이 문제를 계기로 마포로컬리스트컨퍼런스라는 공론장을 개최했다. '다정한사무소(마포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의 별칭)'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단체들 및 개인들이 힘을 모았다. 이 컨퍼런스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2015년 11월 : 홍대앞 삼통치킨 가게에서 건물주가 부당하게 상가세입자를 내쫓으려 하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함께 이에 저항하였다.
- 2015년 12월 : 경의선공유지 늘장협동조합 등이 함께 주최하는 '모두를 위한 경의선 공유지' 포럼이 열렸다. 늘장이 있던 부지를 '공유지' 개념을 적용하여 커먼즈운동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 2017년 01월 : 마포지역의 주민/시민단체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마포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시작하였다.
- 2017년 09월 : 마포민간네트워크(마포넷)가 포괄적 네트워크로 출발하였다. 이는 이후 마포NPO네트워크 '모두마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요약]

2013년부터 서울시의 혁신정책을 계기로 전혀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각종 중간지원조직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활동들이 발생했다. 또한 전혀 새로운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여 지역 활동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분야별 혁신정책은 주제별 네트워크 조직으로 정착되었으며, 민간단위에서는 포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지역 시민활동은 규모면에서 확대되었고, 주제에서도 보다 체계화 되었다. 그러나 동단위 주민

생활권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었다.

2) 서대문구 시민사회의 역사

○ 씨앗들 : 2010년 이전

- 전국단체인 ‘나라사랑청년회’(1988년 창립)와 ‘장애인부모모임’인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2008년 창립)를 제외하면 규모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없었다.
- ‘나라사랑청년회’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청년들의 이익과 요구 지향을 담아내어 청년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향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지향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을 가진 전국 조직이었다.
-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는 “장애아동의 보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서대문 지역 부모간의 결속”을 목적으로 설립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결속과 교류 연대 교육 상담사업과 장애인 교육권 등 장애인 교육복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 새로운 움직임 : 2010~2012년

- 2010년과 2011년도에 지역활동을 전제로 한 시민사회단체 설립되거나 서대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그 대표적 단체로 ‘너머서’가 있다.
- 2011년 3월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광노현교육감 특별강좌를 계기로 몇몇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었다. 서대문지역에도 민간활동 영역의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어떤 행사나 사안에 대해 참여하고 싶어도 통로가 없고, 함께 할 사람 및 단체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약 30여 단체 및 개인 회원이 모여 ‘서대문희망네트워크(약칭 서희네)’를 추진하였다. 희망네트워크 준비단위는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지역 네트워크 사례 강연’을 기획하였고,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실습 준비, 공동 워크숍 등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활동 공간은 다소 엉뚱한 계기로 마련되었다.
- ‘너머서’(대표 김종남, 2005년 창립) : “차별과 편견을 넘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을 활동 기조로 2011년 서대문구 영천동으로 이주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독립문 녹색장터, 여성영화제, 안산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대표 김혜미, 2011년 창립) : “서대문 지역의 소외계층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에 힘쓴다”를 목적으로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창립했다. 독거노인,

한부모가정에 반찬나눔 봉사를 하고, 지역 커뮤니티 기반 카페를 설립·운영(주부 및 장애학생 등 고용)했다.

- ‘서대문희망네트워크’(대표 양리리, 신성은. 2011년 창립) : “1.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워크숍 2. 주민들의 삶의 활력을 위한 문화사업 3. 주민들의 네트워크 사업의 장”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서대문희망네트워크가 광노현 교육감 특별강연을 계기로 창립했다. 성미산마을 탐방,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사례 발표, 관악주민연대 특강, 서대문구 자치회관 운영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부지회’(대표 송성남, 2012년 창립) : “바로 서는 학부모 우뚝 서는 아이들. 참교육실현과 지역공동체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창립한 서부지회는 학부모 전래놀이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학부모 강좌, 지역 내 학부모 학교 운영위네트워크 구성 등의 활동을 펼쳤다.

○ 경쟁 : 2012~2014년

- 2012년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부모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진행되었다. 당시 ‘서대문사람숲’의 모임 중에서 공동육아에 관심 있던 6개 모임이 연합해서 어린이집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어린이집 연령에 해당하는 모임과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포함된 모임이 서로 협력하여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였고, 부모협동조합의 방식으로 공간지원을 2012년 12월까지 끝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현재의 ‘거북골사랑방’ 건물을 계약금 1천만 원으로 임차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유류저장시설 인근에는 어린이집 시설이 불가하다는 규정 때문에 ‘터전’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계약금 1천만 원을 날릴 판이었다. 대책회의는 언제나 긴급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방안이 2층은 주거용으로 개인이 임대하고, 1층을 공동 주민공간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지금의 ‘거북골사랑방’이 탄생하게 되었다. 2013년 2월에 입주했다. 그때 추진했던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콩세알어린이집’(서대문부모협동조합)으로 연희동에서 개원을 하였다.
- 2013년 3월 ‘서대문마을넷’이 창립되었다. 더 나아가 ‘서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별칭 말랑센터)’까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이 위탁은 ‘마을법인 서대문사람숲’이 진행하였으나 이후 ‘서대문사람숲’ 내부에서 말랑센터 운영진을 놓고 이견이 제기되었다. 결국 2015년 5월에 위탁이 종료되었고 말랑센터는 해체되었다.
- 권위와 전통 있는 리더 단체의 부재와 단체간 협력이 부족하여 점차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 서대문희망네트워크(약칭 서희네)는 너머서,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서대문도서관친구들, 피스빌리지네트워크, 탁틴내일 등 당시 서대문구에서 지역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 연합체였으며, 지역의 구심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차, 새로 마련된 일자리 배분의 실패, 일부 단체의 정보 및 집행력 독점 등으로 인해 내부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활동이 중단되었다.

○ 각자도생 : 2014년 이후

- 서대문희망네트워크의 성과로 탄생한 서대문공동체지원센터가 위탁이 철회되어 구청 직영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창립된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어렵게 형성된 네트워크가 활동 정지되었다.
- 서대문희망네트워크는 ‘서대문마을넷’으로 이름을 바꿔 단체가 아닌 개인들 간의 느슨한 연대체로 축소된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너머서’와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등도 구단위 활동이 아닌 소규모 활동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 서대문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서대문공동체지원센터의 후신) 등 여러 중간지원조직들이 생겼으나 서대문 내 시민사회단체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서대문마을넷은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들의 친목모임인 ‘넷데이’를 운영하고 있고, 구청의 무리한 행정에 맞서 주민운동을 전개하여 마을버스의 운영을 중단시키기도 했으며, 주민 관심사에 대한 공론장 개최 등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한계는 있지만 ‘서대문협치회의’ 내의 6개 분과활동을 통해서 시민역량이 부분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중이다.
- 2013년에 설립된 ‘서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2015년 3월에 창립한 ‘보태기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교육, 연구그룹)’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 그후 2018년 ‘거북골사랑방’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서대문구 가좌로77(홍은동)’에 약 89평짜리 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3~6층) 및 주민 활동공간(2층), 어린이집(1층)을 마련하였다. 옥상과 1층 일부, 2층 전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거북골사랑방’의 2배가 넘는 면적이다. 이 공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2018년 10월에 ‘마을언터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거북골사랑방의 공간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풀뿌리여성주의활동 단체인 ‘너머서’, 보태기교육컨설팅협동조합, 100여명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통소비자협동조합’, 서대문부모협동조합, 주거복지센터 등이다. 앞으로 ‘마을언터’은 플랫폼과 인큐베이팅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요약]

2012년 이후 여러 혁신정책에 힘입어 여러 시민모임이 대거 등장하였다.¹¹⁾ 그러나 민-민

11) 「2018 서대문구 시민사회 조사보고서」, 서대문시민협력플랫폼, 풀뿌리사회지기학교, 7쪽에서 인용. 2017년에 “서대문시민협력플랫폼에서 진행한 ‘서대문구 시민사회현황 및 활동가 욕구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138개의 시민단체, 주민모임 중 77.3%는 2011년 이후 설립된 단체이다.” “서대문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는

간의 협력을 통해 행정에 대한 민간의 협상력을 키우기보다는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정에서 공급되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시민단체가 행정의 보조금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갖게 되면 자신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행정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행정의 속도, 즉 예산 집행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독자적 속도와 일의 방식이 사라지고, 행정의 속도(보조금의 속도)와 집행방식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역량 있는 시민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나마 부족한 민간활동 단위들 사이의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주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구청은 대부분의 사업을 직영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의 강력한 주도 아래 에너지자립마을이 21개가 생겼고,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까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에 주민주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서대문협치의 경우에도 서대문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듯 한 번 무너진 활동의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 과정 또한 길게 간다. 행정에서 바라보는 민간의 독자적 역량에 대한 불신은 의외로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언제나 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역동성을 바라고 있다. 전통적 시민활동의 방식과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 주도의 여러 활동과 사업 등에 주목하고, 새로운 주민커뮤니티 형성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대문 민간활동의 큰 약점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 은평구 시민사회의 역사

○ 새로운 시작 : 1996~2003년

- 1986년 : 풍물패 ‘터울림’이 터를 잡았다.
- 1996년 09월 : 은평공동육아협동조합 소리나는어린이집을 개원했다.
- 1998년 07월 : ‘생태보전시민모임’을 창립했다.
- 1999년 04월 : 저소득 방과후교실인 ‘열린학교’를 개소했다.
- 2000년 01월 :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은평지부가 ‘열린사회은평시민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했다.
- 2000년 04월 : 갈곡리(갈현1동)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작했다.
- 2000년 08월 : 갈곡리 영화제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2000년 10월 : 갈곡리마을축제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행정의 지원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 구축되기 시작한 셈이다.”

- 2002년 :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센터 유휴공간 활용에 따라 대조동주민센터 3층에 만들어지고 주민이 운영하였다.
- 2002년 10월 : 대추마을문화제를 시작했다. 대조동의 문화축제로 진행하였으며 나중에 ‘은평상상축제’의 모태가 되었다. 이 축제는 꿈나무어린이도서관과 대조동주민센터가 함께 진행하였다.
- 2003년 05월 : 온라인 카페 ‘은평사랑방’ 개설, 약 1년간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했다.

[요약]

1996년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소리나는어린이집’을 개원한 이후로 젊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8년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창립된 것을 계기로 1990년대 후반 은평지역에서 풀뿌리 NPOs 창립과 활동이 시작되었다.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목표로 한 NPOs 연대 활동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2000년에 창립한 열린사회은평시민회는 동 단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갈곡리에서의 활동은 ‘알뜰장터’, ‘어린이잔치 한마당’과 같은 작은 행사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 성장과 분화 : 2003~2007년

- 2004년 02월 : ‘은평시민넷’을 창립했다.
- 2004년 05월 : 제1회 ‘은평어린이잔치 한마당’. 이 어린이날 축제는 열린사회은평시민회, 두레생협,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넷이 함께 모여서 준비했다.
- 2004년 10월 : 인터넷 지역언론으로 ‘(주)은평시민신문’을 설립했다. 또한 은평 벼룩시장을 매달 진행했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와 갈곡리마을 주민모임이, 갈현1동주민센터에서 함께 진행했다.
- 2004년 11월 :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같은 시기에 ‘은평마당’을 만들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현안을 대응하고자 만든 연대체였다.
- 2004년 12월 :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을 창립(초대이사장, 홍기원)했다.
- 2005년 01월 : ‘아름다운 은평을 위한 연대모임’(은평연대)을 결성하고 은평 뉴타운 대책 및 북한산, 이말산 등 생태보전 활동을 중심으로 했다.
- 2005년 04월 : ‘은평연대’에서 진달래축제를 개최했다. 식목일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했다.
- 2005년 04월 : 은평자치포럼 주최로 ‘은평지방자치학교’를 열었다.
- 2005년 04~11월 : ‘은평알뜰장’을 4차례 은평문화예술회관 노천극장에서 개최했다.
- 2005년 05월 : 제2회 ‘어린이잔치 한마당’을 진행했다.
- 2005년 05월 : 갈현1동에 ‘녹색가게’를 개점했다. 갈현1동주민센터 공간지원사업으로 주

민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문을 열었으며, 가게 운영 수익금은 저소득가정 교복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 2005년 11월 : 은평시민신문 1주년 기념콘서트('나팔꽃과 함께 하는...')를 개최했다.
- 2006년 04월~10월 : 은평마당, 찾아가는 벼룩시장(응암동, 불광동, 갈현동 등 각 동 주민센터)을 실시했다.
- 2006년 04월 : 갈곡리벼룩시장을 시작(셋째주 토요일)했다.
- 2006년 05월 : 제3회 '어린이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갈현초)
- 2006년 06월 : 제4회 지방선거에 시민후보(홍기원 은평두레생협 이사장)가 출마했다.
- 2006년 10월 : 은평자원활동가 교육(자원활동으로 빛나는 은평만들기)을 실시했다.
- 2007년 02월 :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은지네)를 창립했다. (12개 단체 참여)

[요약]

공동 연대사업 과정에서 좀 더 폭넓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11월에 소수의 풀뿌리단체 연대모임인 '은평마당'을 구성하였고, 이후 2005년 1월에 '은평연대'(아름다운은평을위한연대)를 발족시킴으로서 이 '은평마당'은 발전적으로 해소하였다. 은평연대는 폭넓은 지역사회 풀뿌리 NPO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연대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년이 지난 뒤인 2007년 2월에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은지네)'를 창립함으로써 또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획이 가능하였고, 의제 설정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활동이 한 단계 성숙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 활동 영역의 확장 : 2008~2016년

- 2007년 05월 : 제4회 '어린이잔치 한마당'을 실시(녹번초)했다. 지역에서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가 없어서 만들게 되었다. '은지네'가 진행하고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결성되어 함께 연대하였다.
- 2008년 05월 : 제1회 '은평상상축제'를 시작했다. '은지네'가 진행하고 2010년부터 은평마을상상축제를 골목에 담아 진행하는 '상상골목축제'를 진행했다.
- 2009년 06월 : 은평두레생협 첫매장 '구산점'을 개점했다.
- 2009년 08월 : 착한카페 '마을'(현 마을엔)을 개업했다.
- 2010년 :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은평구의 예산사용을 주민이 함께 논의하였다.
- 2010년 05월 : 제7회 '어린이잔치 한마당', 제2회 '은평상상축제'를 개최했다.
- 2011년 : 학교밖지원센터 '작공'을 개소하였다. 또한 '은평도시농업조례'가 제정되었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주민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신사동 도시재생 사업의 성

과로 '산새마을'이 조성되었다. 두꺼비하우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2012년 11월 : '작공' 청소년 휴카페로 이전 개소하였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제정되었다. 10년 가까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노력한 결과였다. 이후 '은평학부모네트워크'와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 2013년 02월 : '(사)은평상상'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 2013년 04월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창립했다.
- 2013년 05월 : 은평두레생협 편의점형 매점 '불광센터점'을 개점했다.
- 2013년 05월 : 마을엔 바느질공방을 개소했다.
- 2013년 05월 : 청소년문화공간 '신나는 애프터센터'를 개소했다.
- 2013년 05월 : 제10회 '어린이잔치 한마당'(국립보건원 부지)을 개최했다.
- 2013년 05월 : 제5회 '은평마을상상축제'를 갈현, 역촌, 물푸레골목축제, 마을난장 함께 실시했다.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과 '(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를 창립했다.
- 2013년 06월 : 은평두레생협 제2매장 '응암역점'을 개점했다.

[요약]

문화, 교육, 환경,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별 시민사회 영향력을 확장하였고 그 결과로 분야별 네트워크(연대체)를 창립할 수 있었다.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은평협동조합협의회,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장애인이 살기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은평학부모네트워크,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작은도서관협의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폭발적 증가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은평 마을단위 공동체 조직과 마을기반 활동가들이 성장하였다.

2013년 2월에 '(사)은평상상'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성장하였던 여러 민간활동 역량들이 모인 포괄적인 네트워크였다.

○ 전환 모색 : 2016년 이후

[요약]

시민사회는 크게 확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은지네)'의 미션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요구되었다. 활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의 발전적 해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형태와 운영 원리를 갖는 '(가칭)시민협력플랫폼'을 구상하였다. 이제 활동 조직은 '플랫폼' 개념을 본격 도입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보았다. 또한 협치의 전면화를 위한 한 단계 성장한 민관협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4) 소결

마포지역은 1990년대 중반 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했다. 2004년 '마포연대'의 출범이 그것을 알렸다. 이들과 협동조합 활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성미산마을과 협력하여 지역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에 2008년 마포민중의집이 지역의 노조와 노점상 등과 연결하고자 새롭게 출범했다. 마포연대는 여러 지역 현안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였고, 민중의집은 상인회와 연계하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길게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2009년에 마포연대가 해산하였고, 2017년에는 민중의집이 활동을 중지하였다. 이제는 전통적 개념의 시민단체가 사라지고 그에 대체하는 새로운 흐름은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서대문지역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뒤늦게 세력을 결집하였으나, 지역 시민사회 역량이 깊지 못하였다. 내부의 크고 작은 갈등과 의견 대립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겨우 마련한 '서희네'라는 연대체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시민운동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변화해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모색을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은평지역은 마포지역과 비슷한 시기와 방식으로 초기 주체들을 형성하였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는 초기부터 마을단위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동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한 축으로는 축제나 장터 등 지역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밟았고 다른 축으로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연대체를 소중히 발전시켜 나갔다. 이 두 가지 활동을 축으로 지역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분야별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서북 3개 지역의 역사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전통적 방식의 시민운동에서 새로운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이 과제는 앞으로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미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서북권 시민사회 현황

1) 지역단체 현황

가) 마포지역

마포지역에 소재한 210개 비영리민간단체 및 267개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역사회에 주로 등장하는 단체 및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 단체들은 규모가 매우 크기도 하고, 반대로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도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의 단체도 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 단위에서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돌봄 관련 단체]

○ (사)나눔과나눔 :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장례지원활동, 구술생애사 책 발간, 죽음준비 교육, 영정사진 촬영, 무연고사망자 추모제, 장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등을 진행한다. (아현동)

○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의원' : 지역주민과 의료인의 협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3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보건복지부 인증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서교동)

○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마포지회 :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통합, 복지와 인권증진을 실천하는 단체이며,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성산2동)

○ (사)마포희망나눔 : 2005년 시작된 복지NGO이고, 서로 돕고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성산동)

○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 성인이 된 발달장애 청년들이 마을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기지를 만들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발달장애청년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옹호가게'를 만들었다. (성산동)

○ 와글와글작은도서관 : 부모들이 성산2동의 주민, 단체들과 함께 십시일반하여 만든 민립도서관이다. (성산2동)

○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 카페를 지역 주민의 돌봄, 문화, 예술, 커뮤니티 거점으로 구성하였다. '소금꽃마을마더센터사회적협동조합'를 인큐베이팅했다. (염리동)

○ **올림두레생협** : 2001년에 설립하여, 안전한먹거리공급사업을 중심으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였다. 2018년 현재 조합원수가 1,200세대이며 이중 마포구 거주 가입자 수는 6,900명이다. (서교동)

○ **토끼똥공부방** : 배움과 놀이의 공간이며, 망원동에 위치한 작은 공부방이다. (망원1동)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

○ **개똥이네책놀이터/동네책방 개똥이네**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동네서점인 동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성산동)

○ **공간릴라** : 2010년부터 망원동-성산1동 근처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술모임과 창작을 하는 마을예술창작소이다. 음악작업, 인문학모임, 거리공연 '금요일에 슬그머니', '마을에서 탕고를' 등의 계속 변화하는 활동으로 마을예술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망원1동)

○ **마포FM(FM100.7Mhz)** :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공동체 라디오다.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이다. (연남동)

○ **민들레창작꿈터** : 공덕동 만리시장 봉제골목 인근에서 문화에서 소외된 어린이, 이주여성들을 위한 예술 체험 활동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다. (공덕동)

○ **삼십육점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 : 생활협동조합형태로,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가 아프든지 가장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1차 의원인 '우리동네30분의원'과 함께 하고 있다. 건강 뿐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소모임들을 운영하고 있다. (염리동)

○ **(사)사람과마을** : 성미산 마을의 내부 및 외부 단체와 연대하는 역할, 각 단위를 넘어 마을을 고민하고 마을의 울타리를 열고 낮추려 노력하는 역할을 한다. (성산동)

○ **아현동사람들** : 마을정원사, 골목조사 활동 등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아현동에 함께 산다는 공감대로 마을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주민모임이다. (아현동)

○ **알바상담소** : 짧은 근속기간, 저임금, 간접고용 등 정규직과 확연히 구별되는 여건 속에서 일하며 비용 문제나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 조력을 얻기 어려운 알바노동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상담과 노동법 교육을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노고산동)

○ **울림두레생협 마을위원회** : 조합원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역활동의 틀을 마련하도록, 마을위원회를 설립하고 마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성산동)

○ **다섯손가락** : 발달장애가 있거나 심리적인 이유로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모임이다. (상암동)

[여성네트워크 관련 단체]

○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연남동)

○ **한국여성의집** : 20세 이상 성매매피해 여성의 안전한 보호와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자립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연남동)

[사회적경제 관련]

○ **민트랩** : 향기로 치유하는 아로마테라피 콘텐츠를 기반으로 세상에 없는 문화예술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기업이다.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살림 협동조합** : 생명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한다.

○ **맛을 만드는 사람들** : 여성가장 자활공동체에서 시작한 자활기업이며, 마포구청 앞 산임대아파트 상가에 있는 우리동네 반찬가게를 운영한다.

○ **괜찮아요 협동조합** : 자기이해가 바탕이 된 직업설계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으로 가정과 개인의 경제개선을 돕는 협동조합이다.

○ **와우책문화센터** : 책문화예술축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식정보시대의 책읽는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기업이다.

○ **동물의집** : 반려동물을 위한 착한소비를 추구하며, 믿을 수 있는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 누구나 형편에 따라 밥값을 내고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만든 비빔밥을 먹는, 평등한 식당이다.

○ **일상예술창작센터** : 문화 생산과 소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시민과 창작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일구는 사회적기업이다.

○ **공기헨디크래프트** : 손끝으로 만드는 삶, 시간을 담는 그릇 “공기”는 지구마을 소생자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소셜벤처이다.

○ **트립티** : 공정무역 커피 판매와 체험, 케이터링, 공정여행으로 산재를 입은 이주노동자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이다.

○ **해빗투게더협동조합** : 우리 동네의 지역자산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함께 갖는 행복, Happy Together, Have it together’

○ **함께하는 행복한 돌봄** : 돌봄분야 전문교육과 여성일자리 창출로 함께 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문화예술 관련]

○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 홍대앞 다양한 예술가와 활동가들의 단체이다. 뮤지션, 공연 공간, 예술인, 홍대앞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개인형태로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참가 단위] 예술공간들(벨로주 망원, 벨로주 홍대, 롤링홀, 카페언플러그드, 네스트나다, 제비다방, 그문화다방/그문화갤러리, 안티카페 손과얼굴) + 뮤지션

○ **벨로주, 롤링홀, 카페언플러그드, 클럽빵, 네스트나다, 제비다방 등** : 홍대앞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브 클럽 혹은 카페.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홍대앞에서 공간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 **그문화다방, 안티카페 손과얼굴** : 기본적으로 카페를 베이스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그문화다방은 오랫동안 홍대 일대를 베이스로 몇 번 옮겨 다닌 후에 지금 상수동에 정착했고, 안티카페 손과얼굴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신생공간이다.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와우북페스티벌, 일상예술창작센터** : 2000년을 전후로 초창기부터

홍대에 민관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페스티벌과 시장을 개척한 그룹들이다.

○ **스트리트H** : 홍대에서 지역기반 잡지들이 무수히 생겨났다 사라지는 와중에도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잡지이다.

○ **오하이오, 파이카 등** : 특구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젊은 창작 집단이다. 오하이오는 영상, 파이카는 디자인을 하는데 대부분 홍대를 애정하지만 반드시 홍대만을 베이스로 하지는 않는다.

[요약]

마포지역의 특징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홍대앞 문화 예술인들을 배경으로 각종 문화공간과 프로그램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나 풀뿌리 시민단체가 부재하여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

나) 서대문 지역

특정 이슈와 의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와 풀뿌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 서대문지역은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앙단위 단체가 많이 소재하고 있지만, 반면에 풀뿌리 단체는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많은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부정기적이며 느슨하게 연계되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표 15. 서대문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홍제동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 및 조사
함께하는 도농원	남가좌동	도시농업 마을공동체
너머서(Beyond It!)	홍은동	성차별 극복과 양성 평등문화운동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북아현동	동물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서울복지시민연대	충정로3가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감시와 정책개발
나라사랑청년회	북아현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 개최
한국NVC센터	창천동	비폭력대화(NVC)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충정로3가	에너지복지 관련
서울에너지닥터	충정로3가	에너지복지 및 절약 관련
진보교육연구소	충정로3가	교육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사회적 실천
정보공유연대 IP Left	충정로3가	현실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검토

진보네트워킹센터	충정로3가	사회운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충정로2가	이념과 종교를 초월한 연대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충정로2가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
평화인권 연대	충정로2가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사업
매비우스	미근동	대중매체 비평 및 미디어 교육
서울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충정로2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활성화
인권도시연구소	홍제동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행정 도입지원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제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	홍제동	서대문참여예산학교 운영
문화촌	홍제동	마을공동체, 지역복지, 자원봉사 조사연구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홍은동	소외계층 지원 위한 마을카페 운영

○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의 서대문지회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2008년에 창립한 장애인부모운동 단체이자 가족지원 단체이다. 서대문 전체 500명의 장애우 중에서 서대문장애인부모회에 가입된 사람은 약 130여 명이고, 장애인부모후원회는 약 70여 명이다. 2015년에는 발달장애인 작업보호장인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다.

○ **(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부지회** : 2012년에 창립했다. 학부모 전래놀이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운영위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며, 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서대문학부모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 **풀뿌리여성단체 '너머서'** : 2005년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 단체 내부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고, 성평등운동, 평화문화 프로그램, 10대 자립지원활동, 미디어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차별과 편견을 넘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하고 있다. 서대문지역에서 풀뿌리 여성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며 풀뿌리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서대문 마을공동체 준비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 2009년에 설립했다. 이후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자원봉사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에 반찬배달)와 일자리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A CAFE(커뮤니티기반 카페, 커피 등을 통한 여성 일자리), B CAFE(쿠키판매 등을 통한 장애학생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회원기반 비영리민간단체로는 2013년에 등록했다.

또한 회원기반의 풀뿌리 성격의 단체가 많지 않지만,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여러 방면으로 협력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네국제포럼’과 같은 행사는 여러 기업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진행했다. 2016년도에 참여했던 서대문지역 기반의 단체는 모두 17개였다.

번역협동조합	마을예술창작소 닷라인TV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부지회
풀뿌리사회지기학교	창작집단3355	꽃피는학교
풀뿌리여성단체 너머서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거북골사랑방
보태기교육컨설팅협동조합		서대문구협동조합협의회
신나는조합	집밥협동조합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통소비자협동조합	인권도시연구소	카페여름

○ **가재울라디오** : 2013년부터 시작된 서대문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라디오를 원칙으로 만든 마을공동체 방송이다. 6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방송제작에 함께하고 있으며, 청취자는 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총 900여 개 이상의 라디오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 **거북골사랑방** : 2013년에 공동육아에 관심 있던 6개 모임이 연합해서 어린이집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간을 마련했으나, 인근에 유류저장시설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이 불가하게 되자 이를 새로운 주민활동 공간으로 전환하게 되어 탄생하였다. 거북골사랑방에는 풀뿌리 여성주의단체 ‘너머서’, 보태기교육컨설팅협동조합, 통소비자협동조합, 서대문부모협동조합, 주거복지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요약]

서대문지역에는 여러 성격의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몇몇 단체들은 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활동도 만만치가 않다. 다만 이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이 있다. 개별 단체의 활동은 지역 전체 네트워크 역량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다) 은평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 2017년 3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은평지역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145개로 형태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 2017년 3월 기준 중앙부처에 등록된 은평지역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26개로 형태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임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평구에는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있다. 회원이 있는 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복지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 그러나 유사한 주제와 이해관계자들끼리 협력을 성과 있게 진행해 왔던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단위에서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가나다 순)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	(사)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사)은평상상	(사)한국여성의전화
갈현 지역아동센터	갈현 노인복지관
광암 지역아동센터	꿈이있는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녹번 종합사회복지관	다소니 자립생활센터
늘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조 꿈나무어린이집
대조 꿈나무어린이도서관	마을n도서관
동방 지역아동센터	문예콘서트
마을N카페	벨엘 지역아동센터
물푸레 북카페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페
보물섬 지역아동센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생태보전시민모임 에코상상사업단	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
서울농아인협회 은평지부	성산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은평구지회	소망의집 지역아동센터
소리나는어린이집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시각장애인협회 은평지회
숲동이 놀이터	신나는애프터센터
시립 평화로운집	에버그린하우스
아름다운가게 연신내점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오고싶은 공부방	은광 지역아동센터
유스광현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기쁨의집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은평신용협동조합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은평열린학교 지역아동센터
은평씨앗학교	은평재활원
은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레 지역아동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주민라디오
조은아이들 지역아동센터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진관 지역아동센터	풍물패 터울림
포도원복지센터	한 살림생협 중서부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은평지부	함지박(은광지역아동센터)
함께가는은평장애인부모회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요약]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으나, 활동 영역이 은평구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 단체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은평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풀뿌리 NPO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지역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은평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NPO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들은 지역차원에서 각종 제도개선에 매우 적극적이며, 그에 따라 은평구 사회적경제기본조례, 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 도시농업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친환경무상급식조례,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 등의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점이 은평구 지역활동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다.

2) 네트워크 현황

가) 마포지역

○ 마포NPO네트워크 '모두마포'

'모두마포'는 마포민간네트워크(마포넷)라는 이름으로 2017년 9월 1일에 창립했다. 2015년 11월 처음 열렸던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에서 포괄적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후, 2016년 초 마포시민협력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더 공감대를 만들어갔고, 2016년 3월부터 매월 민간활동의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모여 각각의 현재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인 '마포 지역활동가 상호브리핑' 모임을 시작했다. 이후 마포지역포럼을 진행하며 2016년 5월 '포괄적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준비모임'을 처음으로 가졌다. 이후 모임과 토론회를 이어가고, 2016년 중반 마포 시민협력플랫폼 준비과정과 2016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2016년 12월 '포괄적 네트워크 준비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6차례 회의와 실무 집행 끝에 드디어 2017년 9월 창립되었다. 창립 이후 매월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며 2017년 11월, '2017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를 주관·주최하고, 2018년 초까지 <내가 만드는 마포, 주민의제모임 '한정책줍쇼'>를 진행했다.

2018년으로 넘어오며 첫 번째 변곡점이 되었던 것은 1월 '모두마포운영위원회+@ 워크숍'이었다. 이 워크숍에서 마포지역의 다양한 민간 주체 20여명의 핵심 구성원이 모두마포의 목표와 역할, 2018년의 계획과 활동, 모두마포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을까 등에 대해 함께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큰 성과였다. 2월에는 '2018 마포 지역활동가 다같이신년회'가 있었다. 해마다 진행되었던 신년회를 올해는 모두마포와 마그넷이 함께 준비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포 지도그리기'를 통해 모두마포의 각 구성단위를 소개하고 올해의 활동과 계획 등을 나누었고, '지금 여기 마포' 코너를 통해 올

항해 있을 지역의 큰 변화와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 예년과는 다른 지점이었다. 아마도 이후 매년 신년회 자리에서도 이러한 ‘공유’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후 매월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며 모두마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체계 논의 등을 이어가며 2018년 4월 정기총회를 맞이했다. 주요한 안건과 변화는 ‘네트워크 of 네트워크’ 성격을 반영한 정관 개정과 신임 대표 선출, 명칭 변경이었다. 신임 대표로는 마포돌봄네트워크의 공동대표 조지혜와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정문식이 모두마포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었고, 명칭은 열띤 경합 끝에 ‘마포민간네트워크’에서 ‘마포NPO네트워크 모두마포’로 최종 변경안이 통과되었다.

4월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마포와 마포시민협력플랫폼이 함께 주최하고 14개 부문의 정책 단위가 참여한 ‘마포 정책참여 모두회의’가 열렸다. 교육, 여성, 청년, 문화예술, 대안주거, 돌봄,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경제, 복지, 장애, 노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자기 의제와 정책들을 발표하고 함께 나누며 공감했다. 지역 공통 의제로는 공간, 협치, 조례제정 등이 선정되었고, 이를 모둠별로 함께 토론하고 발표했다. 이후 5월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정책제안&질의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공개, 공유하는 활동을 했다. 마포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의제를 공유하고, 정책제안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고 행동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도 많겠지만, 지역에서 모두마포의 역할과 힘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순간이었다.

10월에는 상암소셜박스에서 모두마포 운영위원회의 하반기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오랜 논의와 토론 끝에 모두마포가 향후 추진해 갈 지역의 5가지 중점과제를 공감하고 결정한 것이 큰 성과였다. 11월에는 어느덧 4년째를 맞이한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두마포가 주관해 진행했다. 올해의 슬로건은 ‘연결의 힘, 우리는 모두마포’였는데, 그 이름만큼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많은 지역 주체들이 함께 하는 이야기 박람회, 이야기 축제의 장이었다.

[참가 단위]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마포교육네트워크(준), 마포돌봄네트워크,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포여성네트워크, 마포장애인부모연대, 마포희망나눔, 망원시장상인회, 문화연대, 시소와그네, 함께주택협동조합,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 마그넷

2016년 8월, 복지·마을·사회적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민간부문 협의체 마그넷(마포그라비티네트워크, 복지×마을×사회적경제 민간협의체)이 시작되었다. 마그넷은 각 영역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욕심과 경쟁을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

는 것을 찾아 지역의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지향한다. 각자 처한 환경, 이해관계,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교환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 단위] 마포시민협력플랫폼,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포마을넷,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성산종합사회복지관

○ 마포돌봄네트워크

공부방, 복지관, 협동조합 등 많은 단위에서 돌봄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개별적인 활동으로만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 2014년 11월 33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했다.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 가는 풀뿌리 조직이며, 돌봄의 관계망과 공동체를 형성한다. 일방적 사회서비스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지역공동체와 연대한다. 주요사업은 돌봄 이슈와 관련된 공론장을 운영하고, 아동방과후 돌봄, 어르신 돌봄, 고독사 주제 특화사업 등을 진행한다.

[참가 단위] (사)나눔과나눔,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무지개의원,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마포지회, 마포종합사회복지관, (사)마포희망나눔,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우리동네나무그늘, 울림두레생협, 토끼똥공부방 등 12개

○ (사)마을공동체네트워크(마을넷)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동체와 활동들을 서로 연결하고 단체 간 또는 민관이 협력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마을넷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실제 하거나 뜻을 둔 단체 또는 개인, 마을공동체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 또는 개인,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별 네트워크의 활동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마을 활동가들로 구성한다.

[참가 단위] 개똥이네책놀이터, 공간릴라, 마포희망나눔, 마포FM(FM100.7Mhz), 민들레창작꿈터, 삼십육점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 (사)사람과마을, 아현동사람들, 알바상담소,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울림두레생협 마을위원회, 토끼똥공부방, 다섯손가락, 소금꽃마을네트워크, 햇살향아리 + 마을 활동가들

○ 마포여성네트워크

마포 여성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연대 활동을 위해 2012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마포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마포 여성 활동가 교류 및 관계망 형성, 성인지 관

점 학습 및 마포구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참가 단위] (사)여성이만드는 일과미래,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한국여성의집,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맨발의엄마들, 벚들바람 + 개인들(구은경, 김아름, 김현미, 김은영, 김연주, 김정수, 박계현, 박신연숙, 박주경, 송순자, 이상미, 이정미, 이은아, 이인순, 임승희, 최이연, 한서은, 홍영락, 홍진주, 정애정, 백민영)

○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받도록 관계를 만드는 목적에 충실하여, ‘쓸모있고’ ‘지역에 꼭 필요한 정보’ ‘지역내 시민사회의 네트워킹을 새롭게 하고, 다지는’ 기능을 한다.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대표 조직으로서 거버넌스 주체성 강화, 회원연대 및 협동사업을 통한 기업들의 연대 강화, 회원사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강화, 지역내 사회적경제 인지도 향상 및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확대, 지역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

[참가 단위] 민트랩, 여성이만드는 일과미래, 마케팅커뮤니케이션살림협동조합, 울림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맛을만드는사람들, 관촬아요협동조합,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마포공동체라디오, 동물 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삼십육점육도씨 의료생협, 일상예술창작센터, 공기핸디크래프트,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트립티, 해빛투게더협동조합, 중부여성발전센터, 함께하는 행복한 돌봄

○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이하 모아)는 돈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능동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경제관계를 맺으며, 자립과 연대를 통해 개인의 행복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2015년 12월 창립했다. 능동적 소비운동, 남는 잉여자금을 활용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잉여활동운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협동으로 해결하는 필요생산운동, 돈과 사람, 지식 등 자산을 공유재화 하는 공유재 만들기운동을 전개한다. 160명의 모아회원, 190개의 공동체가게와 정기적으로 모아화폐를 약정하고 사용하는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 단위] 협동조합[울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산책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관촬아요협동조합], 민중단체[민중의집], 지역부문단체[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년우루루네트워크], 시민운동/마을공동체[사람과마을, 서울시 마포구 ○동, 소금꽃마을네트워크], 지역 상인회/중소

자영업[망원시장상인회를 비롯한 골목 자영업 가게들], 문화예술인[홍대 앞 두리반,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 뮤지션, 예술인], 노동조합[희망연대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 가든호텔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 등]

[모아에 참여하는 가게들 리스트] 울림두레생협 용강점, 더 빵(빵집), 빈스서울갤러리(커피 윌두), 우리동네나무그늘(카페), 처갓집양념통닭, 아현포차 강타이모네, 아현포차 작은거인이모네, 트립티 신촌점(공정무역커피), 트립티 서강대점 카페, 트립티 신수점 카페, 중부여성발전센터, 사랑방 카페매점 두잇두잇 카페, 새로봄 수선, 엔젤미스코리아, 손으로 카센터, 리더메이(가죽 공예), 향기로운 샵(#), 맘앤키즈, 은영 가죽공방, 이너프라운지(커피윌리) 카페, 연우김밥 서강점, 행화당 카페, 비온뒤숲속약국, 성미산차병원(카센터), 카페M, 한강문고, 기쁨약국, 더 파인트(맥주전문점), 을지로골뱅이 식당,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병원, 문턱없는 밥집, 콩고을 전주콩나물국밥, 키다리아저씨빵집, 달빛소굴(주점), 동네책방 개똥이네책놀이터, 우리동생동물병원, 울림두레생협 성산점, 작은나무 카페, 행복한마당(식당), 아이유베베 홈패션(공방), 카페 갤러리윌, 망원만방(만화방), 망원시장, 비누두레(비누공방), 마켓인유(세컨핸드샵), 책방 만일, 진땀이 망원역점(명태조림), 연우김밥 성산점, 오색오미(친환경도시락), 초록리본도서관, 초록책방 서점, 푸라닭 식당, 끼니(김밥, 육개장), 울림두레생협 망원점, 고향집 칼국수, 복지마트, 데이터커피, 오늘의 나, 사치 커피로스터스 카페, 안도박스 서점, 할매슈퍼 카페, 안녕만화 서점, 육-장 식당, 밥심 식당, 커피집숍 카페, 전라도추어탕 식당, 지새우고 카페, 쌍둥이네집 식당, 창비카페 카페, 플라크커피 카페, 고기도국수면 식당, 마포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동네정미소 성산, 카페 소디, 더드림, 마이클식당, The Plate 카페, 왕의밥상 식당, 동네정미소, 정민식당, 키키반점 식당, 플랫폼 카페, 굿디드 (커피 크레페) 카페, 북카페 산책1호점, 동그라미(되살림가게, 공방), 그린에버(꽃집, 식물관리), 카페 탱크6, 행복중심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녕커피별, 북경 식당, 놀란곱창 식당, 두리반(칼국수, 보쌈), 예본치과, 뽀뽀한가게/위드프리마켓, 밥스바비 연남점(핫도그, 파이), 곤밥(갈비찜, 비빔밥), 부영이곳간(코워킹스페이스), 연우김밥 상수점, 자전거공방 두부공, 쓰리고 카페, 술그리다 식당, 엔네일, 369활어회, BYC, 갓볶이, 고려왕족발, 교동왕족발, 국제시장, 군산수산, 감놀이네 야채과일, 남경야채, 다이소, 대박수산, 대진청과, 더페이스샵, 두부두부둑, 떡사랑, 똥이할매, 라화콩부(마라탕), 루디아, 마당쇠, 마포축산, 맛있는집, 망원수제고로케, 망원시장손칼국수, 망원잡화, 망원축산, 모든발, 모자나라, 목포홍어무침, 무침프로젝트, 민철유통, 바다마을, 바삭마차, 볶고또볶고, 부산대원어묵, 부자상회, 뷰티크레딧, 빨간오뎅, 삼시세끼, 삼초전, 새나래수산, 서민구판장, 서울축산, 성미건어물, 성진두부(시골맷두부), 솔나무떡집, 송이네, 수경야채, 시베리아호떡, 싱싱나라, 아네스패션, 아리따움, 알뜰살림, 알뜰시장마트, 엄마손마트, 엄마손반찬, 엄마손왕두부, 에녹야채, 에브리데이, 오공찬, 오지개, 올리비아하슬러, 우리축산, 유진플라워, 이

삭토스트, 장수족발, 장충동왕족발, 전통맛죽, 종로연떡방, 즉석수제핫바, 진양수산, 진영청과, 큐스 1호점, 큐스 2호점, 털보네야채, 트라이, 틈새전, 풍년기름, 하나로축산, 하림망원유통, 하림체리부로(닭고기), 현대식품, 혜성유통, 혼다라멘, 홍보사, 홍삼나라

○ 소금꽃마을네트워크

염리, 대흥, 아현동을 중심으로 마포 동부지역의 주민 및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과 구성 단체들의 의제를 공유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며, 일상적으로 마을 텃밭을 함께 경작하고 가을엔 소금꽃마을축제를 개최한다. 지역주민 및 단체 누구나 참여가능한, 자발적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이다.

[참가 단위]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소금꽃마을마더센터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울림두레생협, (사)환경교육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아현동사람들, 50+중부캠퍼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삼십육점육도씨의료생협, (주)트립티, 알바상당소, 빈스서울갤러리, 도예공방 클레이앤조이, 책으로읽는따뜻한세상

[요약]

마포지역은 2009년도 전통적 개념의 풀뿌리 시민단체였던 ‘마포연대’가 해산하고, 그 이후 지역의 이슈에 적극 대응했던 ‘민중의집’이 그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했으나, 현재는 그마저도 활동이 거의 정지한 상태에 있다. 2010년도 이후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전통적으로 강세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배경으로,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관련 활동들이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광역시나 자치구의 행정정책에 대응하는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으며, 과거 전통적 개념의 시민단체 활동은 침체되었다. 이런 현상은 민간활동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많은 고민을 제기하였다. 동단위 주민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단위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서대문지역

○ 서대문구협동조합협의회

2013년에 창립총회를 했다. 서대문구에는 협동조합 132개, (예비)사회적기업 13개, 마을기업 5개 등 150여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 2017년에는 ‘협동조합 지속가능성 모색을 위한 서대문포럼’을 열기도 했다.

○ 서대문마을넷

서대문희망네트워크(서희네)가 해산한 뒤 개인들의 연대체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흥은 1동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11번의 노선유지를 놓고 주민운동을 펼쳤다. 마을버스 11번 노선이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토론회 ‘마을버스 공론장’을 열었고, 마을공동체방송 ‘가재울라디오’ 등을 통해서 알렸다. 노선폐지반대 서명운동을 벌이자 8천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했다. 결국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요약]

서대문지역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단위가 약하다. 이는 민간역량을 드러내거나 발전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은평지역

풀뿌리 민간네트워크는 2010년대 이후에 등장한 형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오랫동안 자치구의 지원 없이 자생적 발전을 모색해왔던 풀뿌리 NPO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 조직의 한계를 네트워크와 연대라는 도구를 통해 극복하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여 왔다. 은평구에는 몇 가지 중요한 네트워크 조직이 있으며, 각 분야별 네트워크와 연대활동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2. 은평시민사회 네트워크 분포도>



○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은지네)

2007년에 창립했다. ‘사람과 자연이,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행복한 은평마을 만들기’를 꿈꾸는 은평지역 소재 22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기관의 연대모임으로 지역의 대표적 NPO 네트워크이다. 은평마을상상축제, 은평어린이잔치한마당, 은평상상포럼 등의 공동행사와 마을과 도서관모임, 사회적 경제모임, NGO센터모임, 장벽없는은평만들기모임 등의 TF팀을 운영하며 주민활동을 촉진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은평과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민관협력을 하고 있다. 2017년 2월 지난한 논의를 통해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의 발전적 해체를 선언하였다. 은평 시민사회가 확장되면서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를 대체하는 다양한 분야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고,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에게 주어진 기존의 역할이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대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형태의 논의, 소통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향후, 여러 모색을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 환경에 걸맞는 시민사회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참가 단위] (사)열린사회은평시민회, 은평시민넷, 품물패터올림,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 소리나는어린이집,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서부장래인종합사회복지관, 늘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아름다운가게연신내점, 대조꿈나무어린이집, 마을n도서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신나는애프터센터, 함지박(은광지역아동센터), (사)한국여성의전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은평씨앗학교(준회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준회원), 은평시민신문(참관단체), 한 살림중서부지부(참관단체), 갈현노인복지관(참관단체), 은평주거복지센터(참관단체), 시립평화로운집(참관단체), (사)은평상상(연계단체)

○ 장애인이 살기좋은 은평만들기 (장은사)

은평구에 있는 15개 장애인복지관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순수 민간 네트워크 모임이다. 장은사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은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장애당사자, 종사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의 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장은사는 2010년 6.2지방선거 변화에 맞춰 24개 기관들이 모여 장애인복지발전제안서를 신임구청장에게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장애주간행사’, ‘지역 캠페인’ 등 어느 기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힘을 모아 이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연대하고 힘을 모아 은평구가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으로 장애인정책을 주도, 장애인어울림한마당 등의 문화행사, 장애인들이 다니는 보행로와 도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 및 개선활동 등 장벽없는 마을만들기를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활동 등 장애

인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연대와 협력활동 추진하고 있다.

[참가 단위] 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농아인협회은평구지부, 서울시장애인부모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은평구지회, 시각장애인 협회은평지회, 시립평화로운집, 에버그린하우스, 은평기쁨의집,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재활원, 포도원복지센터,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은평지부, 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 은평동네텃밭협동조합

은도네는 2008년에 창립했고, 2015년에 텃밭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은평에서 도시농업, 지역먹거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은평구와 함께 '은평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관내 소규모 그린벨트 지역을 '도시농업공원'으로 만드는 활동, 도시농업 교육(도시농부학교 등), 로컬푸드 순환 시스템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참가 단위] 은평두레생협, 은평시민넷, 생태보전시민모임, 마을n도서관

○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교육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아동이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아동들에게 지원한다. 26개 지역아동센터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 단위] 은평열린학교 지역아동센터, 꿈이 있는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광현 지역아동센터, 이레 지역아동센터, 오고 싶은 공부방, 조은아이들 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벨엘 지역아동센터, 성산 지역아동센터, 갈현 지역아동센터, 은광 지역아동센터, 진관 지역아동센터, 보물섬 지역아동센터, 광암 지역아동센터, 동방 지역아동센터, 소망의집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유스광현청소년 지역아동센터

○ 은평학부모네트워크

자라나는 아이들이 존중받고 스스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정책과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은평구의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들에 참여하는 등 자녀들의 교육환경 점검과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여 활동하는 교육네트워크이다. 2009년 창립했다.

[참가 단위] 개인 자격으로 가입. 은평지역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로 구성

○ 은평구작은도서관협의회

은평구에는 70여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돕는 지원 체계나 도서관끼리의 상호 협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소통하는 마을형 작은도서관 운동과 독서문화, 지역문화운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차별 없는 이용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확보와 회원들 간의 교류 및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도에 창립했다.

[참가 단위]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물푸레 북카페, 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 기타

○ 은평협동조합협의회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로 협동조합 조성 붐이 일고 있다. 2012년 이후 은평지역에서도 많은 협동조합이 창립되었거나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결사체와 사업체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은평지역에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은평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들게 된다. 은평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 되고, 조합원이 가장 많은 은평신협을 필두로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이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과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모임과 논의를 통해 협동조합 간의 정보교류, 정보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가 단위]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은평신용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소리나는어린이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 은평인권네트워크

은평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013년 11월 7일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인권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계층적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를 포함한 은평구민 전체의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인권네트워크로 그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2015년 7월 8일 발족하였다. 1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은평마을네트워크

2015년 마을활동가들과 토론회를 열었고, 2016년 4월부터 지역의 마을관계망 안에서 서로

교류하던 여러 주민모임들과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마을사업지기 주민들, 이미 동네넷을 만들어 운영하는 활동가들을 연결하여 ‘은평마을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은평마을네트워크는 지역의 마을공동체 관계망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동네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을 연결하여 모임을 진행했다.

[요약]

은평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과제해결이 필요하다. 풀뿌리NPO를 기반으로 한 은평시민사회는 지난 16년간 네트워크와 연대활동을 통해 개별 조직이 달성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성과와 목표를 달성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직은 여전히 인력난, 재정난에 힘들어하고 있고, 활동가 평균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사회 성장도 일정 정도 정체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질적 도약을 위해 시민사회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 그리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서북 3구 시민사회의 발전양상과 현재 존재양식의 차이는 매우 분명하게 확인된다. 마포지역은 마을공동체 활동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새로운 실험의 등장 등이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의 사회적이며, 인구적,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지역은 전통적 시민운동의 역사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년대를 맞이했고, 2013년부터 본격화된 서울시 혁신정책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상호경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로인해 내부 균열이 발생했고, 이것이 활동의 큰 방해요소로 작동했다. 서대문지역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되살리기보다는 좀더 새로운 방식을 적극 모색하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은평지역은 전통적 시민운동들이 서로 오랜 협력의 경험을 누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2010년대 이후 행정의 혁신정책에 매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복잡하고도 다양한 네트워크체 형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3개 구 모두 공통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 시민운동 방식의 전반적 쇠퇴현상을 동일하게 겪고 있으며, 2010년대 행정이 혁신정책에 대응하는 분야 중심으로 자기 활동을 재편하고 있는 것도 유사하다. 서대문지역처럼 그 과정에서 대응이 실패했을 수도 있으나, 길게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일도 아니다. 새로운 기회는 이전에 가진 자산이 적을수록 더 빨리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서북권 시민사회 생태계 주요 특징

서북권 시민사회는 그 동안 두드러진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였다. 대부분이 그러하듯 자치구 단위로 활동이 구획되어 있으며, 자치구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없다. 이는 자치구 단위 활동을 강조했고, 자치구를 넘어선 관심은 바람직하지 않은 풀뿌리 운동의 문화가 작용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오히려 광역시에서 정책 실행의 필요 때문에 25개 자치구를 편의상 권역별로 구획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것에서 오히려 ‘권역별’ 개념이 작동했다고 보인다. 즉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시민사회가 ‘권역’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7년 자치구 단위 지역 시민사회가 ‘포괄적 네트워크’로 결집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치구 ‘시민협력플랫폼’의 조력으로 자치구 단위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성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자치구마다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와 성격, 발달 수위가 매우 달랐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혁신정책이 계속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내적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 경과하면서 2010년대 활동에 대해 큰 흐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다.

202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후 1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풀뿌리 시민사회는 자치구별로 구획되어, 상호 독립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이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마포지역 활동가들은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마포연대’와 ‘민중의집’이라는 전통적 풀뿌리 시민단체의 성장과 실패를 보면서, 당사자 욕구 중심의 자연발생적인 흐름과 연결을 더 중요시 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2015년부터 급속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목도하면서 근본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사자들이 등장하고 서로 연결하면서 자연스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는 생각은 자신의 활동 근거지에서 쫓겨나가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매우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한 축으로 ‘시민자산화’ 전략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다른 축으로는 시민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두게 되었다.

서대문지역은 자신의 개별 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공동의 이벤트(행사 또는 이슈대응)로 엮어가는 기획이 부재했던 게 중심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보인다. 핵심은 자기 역량이 준비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행동이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기본 바탕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의 지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즉 지역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가 충분하지 못하였을 때는 곧바로 크고 작은 공격을 받기 십상이다. 공격은 상대가 만만할 때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활동의 역사성과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

은평지역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차근차근 자기 역사를 구축하고 성장한 풀뿌리 활동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마포지역과 달리 ‘열린사회은평시민회’는 곧바로 동단위 지역사회에서 자기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마포는 공동체(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끼리끼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은평은 지역사회(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드넓은 바다’로 뛰어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는 그 활동 주체의 생각과 처지, 초기 기획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서는 절대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핵심은 누가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가에 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자기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은 매우 빨리 바뀐다.

4. 서북권 시민사회 지원기관 및 자원 현황

가. 시민사회 지원기관 현황

1) 마포지역

○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포구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조직으로, 마포구 사회적경제 의제와 정보를 모아 지역과 함께 연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역의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돕고, 마포 사회적경제 현황 및 수요조사, 사회적경제 장터 등을 통해 성장기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업종별, 의제별 모임 지원, 사회적경제 협동화 모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상암동)

○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2008년 2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영유아전문복지기관으로 개소하였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과 따뜻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도우며, 영유아-가족-지역사회를 희망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영유아·아동과 양육자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관계의 단절이나 소외 등으로 인하여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자와 함께 문제 상황과 해결방법을 이야기하고, 당사자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양육 어려움의 해결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 함께 한다. (복지기관, 성산동)

○ 마포종합사회복지관

1981년 “사랑”을 모토로 한 인본주의 원칙과 봉사의 설립이념으로 세워진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서 설립·운영하는 전문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가까이 하려 하고 있다. “한 명의 친구가 있을 때 살기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라는 슬로건처럼 지역주민과 통하는 친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구, 지역주민과 성장하는 친구가 되어 지역사회에 가까이 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사회변화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 특화형 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관, 공덕동)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1991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개관한 이래 사회복지학 및 관련 학문과의 협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시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 한 사람이 복잡한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일정 기간 동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례관리, 심리·발달적 어려움을 돕는 전문상담센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주민모임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조직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복지관, 성산2동)

○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지역주민의 실업극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용-복지상담, 교육훈련,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내일을 위한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기관이다. (상암동)

○ 서울특별시중부여성발전센터

여성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각자의 정신적, 육체적, 감성적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직업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용강동)

2) 서대문지역

○ 서대문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와 관련한 행정의 지원 업무를 한꺼번에 담당하는 통합지원센터이다. 2017년 3월에 문을 열었다. (중간지원조직, 남가좌동)

3) 은평지역

○ (사)은평상상

은평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미션으로 2013년에 창립한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이다. 은평지역 사회네트워크(은지네)를 토대로 오랫동안 축적된 연대활동 과정에서 개별 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개별 NPO 성장을 도모하는 별도의 조직체 필요성을 기반으로 인큐베이팅한 비영리법인이다. 창립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 활동

가 역량강화 사업, 은평지역 시민사회 활동을 기록하는 사업, 새로운 비전과 지역과제를 공유하는 포럼과 토론회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 (사)씨즈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며 사회적기업의 혁신모델을 만들고 미래를 연구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사회적경제조직체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2010년에 창립했다. 시민사회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한국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발전 모델 개발,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민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 실천 연구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및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화 모델 개발, 시민 기반 조성 및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델 해외 보급, 섹터간 자원 중계, 사회적기업 실천 연구 및 발전 모델 개발 등이 있다. 은평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은평지역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씨앗 자금 연계와 지원, 컨설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6년 7월에 조직 진단과 새로운 미션 수립 과정을 통해 은평지역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주로 서초구와 전국 단위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한다.

○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교육 실시,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자원봉사 실적관리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와 마찬가지로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역시 은평구청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비상근) 1명, 공무원 4명, 공무원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은평구 16개 동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일감을 개발, 관리하고,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근거지이다.

○ 은평마을지원센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중간지원조직이다. 지원센터는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사업 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2017년 3월에 민간위탁한 상태이다. 현재, 수탁

단체는 (사)은평상상이다.

○ **은평상상허브(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구)녹번소방서가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조직, 은평시민사회, 은평구청, 서울시가 협업을 통해 조성한 시민사회-마을-사회적경제 영역의 협업 공간이다.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의거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허브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사)씨즈와 (사)은평상상 컨소시엄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고, 2차 민간위탁 시기에는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과 (사)은평상상 컨소시엄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혁신교육지원단**

혁신교육 중간지원조직이다.

○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마을방과후시범학교 지원사업, 은평마을속학교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이다.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2013년 9월, 서울지역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2016년부터는 서울시가 광역센터로 지정하여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중구, 종로 등 서북권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혁신파크**

은평구 불광동에 있다.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써, 230여 단체 1,200여 명에 이르는 혁신가들이 상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실험과 연결을 모색하고 있다.

나. 시민사회 자원 현황

1) 마포지역

○ 민간단체 및 기업 공간

<표 16. 마포 지역 민간단체 및 기업 공간>

이름	장소	규모/사용가능 인원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교동 - 지하 강의실	30
한국철학사상연구원	서교동 - 3층 강의실	30
숲센터	성산동 - 4층 강의실	30
경의선공유지 늘장	공덕동 - 모임공간	15
동네책방 개똥이네책놀이터	성산동 - 1층, 지하1층	15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동 - 1층 공간	70
성미산마을극장	성산동 - 지하2층	70
성미산학교	성산동 - 다목적실/음악실	80/30
오늘공작소	망원2동	15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성산2동 - 도서관	20
우리동네나무그늘	염리동 - 카페	20
이문화우인문학협동조합	합정동 - 2층 강의실	20
인권재단 사람	서교동 - 3층 강당	40
클럽 빵	서교동 - 클럽	20
함께일하는재단	서교동 - 지하 강의실	40
시민공간 나루	성산동 - 원경선홀	30
힐링엔아트 릴라	망원1동 - 방	10
2012센터(망원시장)	망원1동 - 지하 1층	30~50명
함석헌북카페	서교동 - 3층	30명
창비학당	서교동 - 지하 3층	30명

○ 중간지원조직 공간

<표 17. 마포 지역 중간지원조직 공간>

이름	장소	규모/사용가능 인원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상암동 - 3층 강당	40
마포문화재단	염리동	1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성산2동 - 3층 강당	40
문화비축기지	성산2동 - 다양한 공간	20~100

중부여성발전센터	용강동 - 대강당	200
50+ 중부캠퍼스	공덕동 - 강의실	20~50

○ 성미산마을회관

2017년 서울시에서 마을활력소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공간이다. 성미산마을의 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작은나무 카페가 입주해 있다. (성산동)

○ 마포 사회적경제의 힘

마포구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협동조합들이 있다.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생협(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삼십육점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이 2곳이고,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모두 1,000명이 넘는 대형 조합들이다. 특히 올림두레생협은 마포구 소재 조합원 6,000명 이상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마포지역의 카페들의 네트워크인 '안녕, 커피별'을 만들어서 카페들 사이의 공동이해를 논의하기도 한다.

2) 서대문지역

○ 마을활력소 공간

<표 18. 서대문 지역 마을활력소 공간>

구분	공간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폐쇄된 상수도가압장을 활용한 공간, 2017년 3월 개소 (천연동)
하하호호 홍제 마을 활력소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의 하나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2019년 4월 개소,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 (홍제동)
나비울 마을활력소	북가좌1동 주민센터 내에 2018년 6월 개소 (북가좌1동)
연희랑 마을활력소	2018년 9월 개소 (연희동)

○ 생활권역별 커뮤니티 공간

<표 19. 서대문 지역 생활권역별 커뮤니티 공간>

권역	분류	공간
홍제권역 (홍은동, 홍제동)	커뮤니티 카페	홍제3동의 '홍삼카페'
	마을 북카페	늘보잡카페(홍은벽산아파트의 북카페)
	마을 공방	나무공방 자락길 품(홍제동)

	마을 공방	함께하는 여성협동조합 문화촌 사랑방 '솜씨'(홍제동)
	마을 미술관	닷라인(홍제1동)
	육아방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홍제1동)
	공공 공간	홍은청소년문화의집&서대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홍은동)
	공공 공간	청년들의 공유지대 무중력지대(홍제동과 무악재)
	공공 공간	시니어의 무지개~! 50플러스센터(홍은동)
가좌권역(가좌동)	중간지원조직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커뮤니티 공간	나비울 카페(북가좌1동)
	마을미디어	서대문마을방송국 가재올라디오
	마을사랑방	가재울 마을사랑방&극장
	마을사랑방	거북골마을사랑방-청년들의 문화공간 창작놀이센터
신촌권역 (연희동, 신촌동)	예술가 공간	청년문화예술인의 아지트 신촌문화발전소
	작가 입주공간	도심속 쉼터 연희문학창작촌
	커뮤니티 카페	예술공간의샘 카페샘
	커뮤니티 카페	연희동주민센터와 마을카페 컵
	육아방	제1호 초등돌봄 꿈도담터&아름도서관
문화공간	청년들의 문화공간 창작놀이센터	
충정권역(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커뮤니티 공간	북아현동 주민센터와 마을북카페
	북카페	영어북카페 b.pe
	도시재생	충현-천연 도시재생지원센터 골목통
	마을활력소	천연동 작은샘터 천연옹달샘

3) 은평지역

○ 커뮤니티 공간

은평구에는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의 성장에 힘입어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생성되었다. 이런 커뮤니티 공간은 지역중심, 가치중심 등 다양한 성격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20. 은평 지역 커뮤니티 공간>

분류	단체 또는 공간 이름	소재동
청소년 북카페	갈마루	갈현2동
커뮤니티 공간	공간 오즈	응암1동
혁신학교 모임/마을탐방교육	금암문화마을학교	진관동
청소년 문화공간	꿈꾸는 다락방	역촌동
마을공동체	꿈틀 마을 공작소	폭포동
미디어 공방	동네스튜디오	은평구
네트워킹 커뮤니티	동네책장	은평구

다문화 공동체	마을무지개	녹번동
마을 카페	마을n도서관	갈현2동
부모 커뮤니티	모모	은평구
마을기업	물빛마을 청국장	수색동
커뮤니티 카페	물푸레 북카페	진관동
마을공동체	불광마을공동체사람들	불광1동
마을 공연장/커뮤니티 공간	복합문화공간 [툼]	갈현2동
마을공동체	녹번산골마을(사랑방)	녹번동
	응암산골마을(마을회관)	응암동
마을공동체	산새마을회관	신사2동
마을공동체	수리마을회관	불광2동
마을공동체	갈곡리마을회관	갈현1동
마을공동체	물빛마을사랑방	수색동
생태육아 공동체	숲동이 놀이터	진관동
공동육아협동조합	소리 나는 어린이집	갈현2동
비영리 사단법인	씨즈	녹번동
마을 기록	아줌마들의 동네탐방 나들이	은평구
은평구 풀뿌리단체	열린사회은평시민회	갈현2동
마을 협동조합	역마을협동조합	역촌동
도시생태 공동체	에코상상사업단	진관동
온라인육아모임(네이버카페)	은평구맘톡톡	은평구
청년 네트워크	은평 독거청년 네트워크	은평구
생협매장	은평두레생협매장, 구산점/응암점/진관점/혁신파크점	은평구일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료사회 의료기관, 가정의학병원/치과/운동센터 다짐	구산동
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	은평 동화 읽는 어른	갈현2동
마을 커뮤니티	은평 마을 이야기	은평구
주민참여 방송	은평 인터넷 라디오방송	녹번동
공동육아모임	은평 품앗이육아(복스타트 맘)	은평구
부모 네트워크	은평 학부모 네트워크	은평구
마을경제공동체	은평 e-품앗이	은평구
커뮤니티 헌책방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녹번동
청소년 북카페	작공	갈현2동
마을 카페/청소년휴카페	즐거운 반딧불이	녹번동
진관동 은평뉴타운 공동체	은아향	진관동
마을 공동체(장독대 사업)	참다래 마을	응암3동
마을기업	물빛마을 청국장	수색동
마을기업	마을무지개	녹번동
마을기업	로하스	녹번동
문화기획/카페와 책방	북앤카페 쿠아레	역촌동
청년 네트워크	청년마을연구소	갈현2동
마을도서관	초록길 도서관	역촌동

도시 텃밭	푸르시오 도시텃밭	응암1동
커뮤니티 북카페	푸르시오 북카페	제각말
공동육아 공간	한빛 마을센터	응암1동
힐링 모임	힐링~ 아버지 카페	역촌동

○ 은평의 복지관련 NPO & 사회복지시설 현황

서울시 외곽의 자치구들(강동구, 관악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은평구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이 단순히 기관중심의 사고와 활동을 벗어나 은평구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자치구를 구현하겠다는 목표 설정으로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 활동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갈현노인복지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은평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장애인 권리증진을 포함한 은평의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표 21. 은평 지역 사회복지시설 현황>

분류	개수
사회복지관	3개
노숙인 복지시설	4개
지역자활센터	1개
장애인 복지시설	36개
사회복지시설	7개
지역아동센터	19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9개
청소년 복지시설	3개
여성복지시설	4개
가족지원시설	1개
노인복지시설	18개

○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은평구에는 2017년 3월 현재 총 18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1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17개,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1개, 일반협동조합(신고) 131개, 사회적협동조합(허가) 10개, 마을기업(지정) 4개 등이 활동하고 있다.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로 협동조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은평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극히 짧은 시간에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거나 창립 준비 중이다. 협동조합은 원래 전통적인 NPO로 구분할 수 없으나, 사회적 미션

추구를 존재이유로 하는 독특한 형태의 사업체로 서구에서는 비영리조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은평구는 오랫동안 협동조합 조직들이 시민사회 NPO의 일원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통이 있다.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을 필두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미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적 확장과 질적 성장이 매우 필요하다.

4. 서북권NPO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비영리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무엇일까? 시민사회 비영리 공익활동은 정치권력과 자본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 주면서, 주민, 시민의 자율성과 역량을 제고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적지원은 당연하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는 시기에 ‘시장’에 대한 공적지원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사례에 따라, ‘사회’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활력을 드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가. 핵심 역할

서북권NPO지원센터의 핵심적 역할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시민력’(social civic competences)을 향상시키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력’이란 자율적인 시민이 지역의 의제 또는 사회 공적인 의제에 대해 적극 반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연대하여 스스로 해결하려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 지역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동단위 주민자치에 적극 참여하며, 또한 여러 측면의 민관 협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 거기에 세대별, 성향별로 사회적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힘을 말한다.

둘째는 서북 3개 자치구 별로 시민력 향상을 위한 ‘접근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센터는 각 자치구별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공론장을 지원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접근 전략’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는 각 자치구 고유의 성격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동 단위’ 활동을 고민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가장 기초 생활권역이었던 ‘동(洞) 단위’까지 사고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동’은 도시의 인위적인 행정구획이지만, 농촌지역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초 생활권역과 대비하여 도시에서의 기본 생활권역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의 형성과 발전과정 자체가 행정의 정책과 인위적인 기획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에서의 자연발생성은 농촌지역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동 단위’는 지역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영향권의 범주인 ‘지역사회’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단위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민력의 향상과 권역별 포괄적 접근 전략의 수립, 동 단위 활동의 적극적 모색은 지역 시민활동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기본 요구들

각 자치구별로 중간지원조직(NPO지원센터)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 시민사회 활동가(activist) 또는 지역 활동가를 계발하고,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공통된 요구이다. 활동가는 전업적으로 활동을 하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양성과정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역 단위의 규모화로 이 과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의 도시정책은 점차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의 경우 ‘권역별 생활권 계획’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생활권 계획’이란 일정한 공간의 생활권역을 설정하여 발전방향,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따로 제시하는 계획¹²⁾을 말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지역마다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 계층, 문화적 특성이 다르고 자연적, 물리적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개 권역(대생활권)¹³⁾으로 크게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적인 소생활권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북권역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북권종합발전계획’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획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시의 정책과 별도로 자치구별 대응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1월, ‘서북3구발전포럼’을 해당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하였고, 뒤이어 12월 ‘서북권구청장협의회’ 구성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이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권역별 대응을 매우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서북권 시민사회가 대응 단위로 포괄적인 안목과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각 자치구별 이슈들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융합적 사고를 해야 하며, 서북권NPO지원센터는 자치구에 국한되어 있는 인식 수준을 깨고 권역 활동의 감수성과 역량을 키워내야 한다.

다. 구체적 요구들

전체의 목적은 서북권 ‘시민력’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 실행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지원센터는 ‘시민력’ 강화라는 커다란 목적에 근거하여 세부적 실행 목표와 역할을 정할 수 있다.

12)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14년

13) 5개 권역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이다.

① 서북권 시민사회 협력의 원칙

각 자치구별 차별점을 평균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고유성이 존중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호 협력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이는 ‘자치구 고유성’의 성격에 바탕을 둔 것이며, 각 자치구 시민사회의 내적 발전과 동력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단 그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상호 협력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방식은 자치구 고유한 과제와 함께 ‘공동 비전/미션’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다. 자치구별 특성화 사업과 공동 비전 수립은 공론장을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사업은 이것을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② 현장 연구의 필요성

중간지원조직은 개별 조직이 포괄하기 어려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기적 포럼과 서북권 컨퍼런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치’를 생산한다. 하지만 그 ‘경험’은 보편적 언어로 해석되지 못하고 개인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았다. 활동 연구는 활동가들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 연구자들을 서로 연계시켜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조직할 수도 있다.

③ 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가(activist)’들이 지속적으로 계발, 양성되는 것은 NPO 활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과거 1990년대까지는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합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직접적 행동(action)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운동(movement)’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풀뿌리 시민활동을 전개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사회적 활동을 했다. 그러나 IMF 이후인 2000년대부터는 지역활동을 운동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하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그 세대가 느끼는 사회적 과제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나이로 30대 이하인 이들 세대는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이 분야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제는 새로운 활동가를 계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하여, 사회적인 보상과 인정체계를 개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활동가 지원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경력관리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칭 활동가대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소양교육, 현장연구 활동 지원, 정기적 포럼과 세미나 지원 등의 다양한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확대되는 주민자치 활동과의 협력

객관적으로 시민활동 영역에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주민층과의 접점을 확대하여 지역자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는 주민활동, 커뮤니티활동이라는 범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커다랗게 보면 지역 시민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주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과정은 곧 '동 단위' 주민활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민활동의 강점 중의 하나가 행정정책에 대한 대응력과 대안제시에 대해 비교적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민력을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가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실 시민활동은 특정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비교적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지역 시민사회는 각 분야별 네트워크 조직체를 구축하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자원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역 전체로 보면 매우 소중한 자원이며, 이의 적절한 상호결합이 요구된다.

⑤ 새로운 활동 모델에 대한 기획과 도전

비영리 활동으로서의 지역 시민활동은 언제나 어렵다. 최근에는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마련,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 이제는 개념적, 기계적 비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즉 자생(自生)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모델의 개발과 시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공유자산, 공유공간에 대한 적극적 연구와 모색도 필요하다.

또한 개별 조직 및 네트워크 조직들도 점차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체 운영과 유지를 보다 규모화 해서 그 생명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사울 D. 알린스키. 2008.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아르케
풀뿌리사회지기학교. 2018. 2018 서대문구 시민사회 조사: 제도화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2005. IT시대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치
하재훈. 2004. 박정희 체제의 대중통치: 새마을운동의 구조-행위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온라인 자료

서울특별시. 2017. 2030 서울생활권계획. <http://planing.seoul.go.kr>
서울특별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2017년 서울시 주택소유현황 통계
2018년 서울시가구원수별가구수(구별) 통계
2018년 서울시공공도서관(구별) 통계
2018년 서울시공무원1인담당인구 통계
2018년 서울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별) 통계
2018년 서울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별) 통계
2018년 서울시예산결산총괄 통계를 기준으로 재작성
2018년 서울시자원봉사자등록 현황
2018년 서울시주택종류별(구별) 통계
2019년 서울시재정자립도 통계
2019년 3/4분기 서울시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별첨자료 1] 마포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이름	사업	대표자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노동자 권익신장, 선진국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성한표
한국여성정보원	여성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개발	김현자
신사회공동선연합 서울시지부	민주시민의식 공동선실천운동	이범
농어촌살리기한마음협의회	농어촌 유통질서 및 유기질비료 연구개발	서세훈
한국암환자회	암치료방법자료제공, 암예방, 암환자복지사업	이정갑
(사)서울경제인협회	회원간 공동연구	김명옥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편의점주 교육과 공동이익 및 가맹분야 정책 제안연대	장영진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서울시협회	환경장애적 요소 및 물질조사연구	장석필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기초질서지키기 및 환경보호 대시민캠페인	이원종
재경경남도민회 청소년봉사단	경남도민회	박연환
아시아브릿지	지구촌 시민의식 함양, 지역사회 대안공동체 개발	윤장현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마포지역본부	환경보호운동	소영철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가족문제 관련 상담교육	송성자
사회복지아카데미	무의탁노인 자원봉사자 기능훈련	임미동
리듬오브호프	취약계층 및 해외 빈민 지원을 위한 온라인 모금	이천귀
국경없는미술사회	국내 및 해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최요셉
문화나눔초콜릿	문화공연을 위한 성우프로젝트그룹 운영	신혜원
민달팽이유니온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사연구	임경지
군인권센터	군인권교육, 정책, 상담, 유엔인권기구 활동	임태훈
서울여성해방연대	여성캠프개최, 3.8여성대회, 반성매매캠페인	유희정
한국채식연합	채식의 유익홍보 및 채식문화 확산	이원복
프롬하트	취약계층 및 시민의 심리정서적 사회서비스 제공	신영섭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환경보존및 환경오염 감시 활동	이동우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남녀평등을 위한 교육사업 여성문제와 여성복지에 대한 연구	박민자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 관련 상담, 정보화사업, 청소년수련활동	김병후
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지역사회 정신건강현장 봉사활동	양옥경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교육·홍보	이원복
양원지역봉사회	청소년선도, 여성 및 노인등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이선재
태양의학교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료제작, 홍보 및 교육	김은형
(사)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지도자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이대형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이호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환경관련조사 연구 및 대국민 환경정보 수집제공	이재성
(사)한국물류협회	물류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병륜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의 보급과 전파	오상만
(사)한국지방발전연구원	지역경제지표 개발, 사회복지지표개발, 행정수요조사	윤여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최금주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서울시지부	청소년 성가치관 운동 전개	정익철
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유아동 안전관리분야 연구개발	김일영
호이	아프리카학교 운영/단기자원교사파견	박자연
글로벌창의인재양성소	일자리 창출지원 및 취업능력개발	조연심
폴올림	뮤지컬을 통한 시민 교류	정연옥
변화의첫걸음	국제교류활동, 사회문화운동, 교육훈련활동	이승용
서울특별시평화대사협의회	초종교 초국가적 평화를 위한 국내외적인 연대와 협력 활동	김주섭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서울시회	남북통일을 위한 교육활동	김학영
소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및 노인 안마봉사 관련된 정보	임홍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전하영
N.G.O.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	장애인창업촉진을 위한 창업상담	한상철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운동	전규찬
마음을춤추다공연창작센터	정기공연	김순선
생명파괴화포럼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인사초청 강좌 및 학술대회	장신규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지역사회 영유아관련 연계활동	강명숙
색동회	어린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연구	배동익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	문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장애인의 사회적권리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운동	김동희
음식물쓰레기줄이기교육운동본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교육 실천사례 발굴홍보	김정호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동화구연 및 아동문학 연구 등 어린이 기관 봉사	지영란
색동회동화구연연구회	어린이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학술회 개최	문수정
민들레	대안적 교육문화 활동	김경옥
공신	대학생 참여와 중고등학생의 자기 주도학습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강성태
사랑나눔봉사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김양진
ISDSA국제셀프디펜스안전협회	국민대상 자기방어 생활안전 지도자 양성	배민훈
(사)국제한인간호재단	재외교포 간호지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연구	김의숙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지회	서울 및 전국 산림, 강, 해양보호 및 정화활동	전선경
충치예방연구회	연구와 학술기획	송근배
아시아희망캠프기구	국내외 자원봉사를 통한 국제청년교류 및 국제자원봉사 정보공유	조규철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중참여적 문화, 예술, 공연기획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손지희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소비자교육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련된 연구	이은희
생명문화학회	생명관련 학술연구	유수현
한강유역네트워크	수질 등 현장조사, 생태교육, 정책토론회, 문화행사	양호

미래환경센터	국내외 환경관련 조사연구, 정책과제 설정	이상현
731부대한국인희생자(마루타)진상규명위원회	관동군 731부대 한국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관련업무	김창권
한국평생교육협회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중요 정책 개발과제 연구	이재영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소아당뇨의 사회적 홍보와 교육	김광훈
(사)해외입양인연대	해외입양동포의 친생부모찾기와 문화체험	박진
엘리	저소득 가정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교육사업	정보근
나우리가족상담센터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폭력예방 사업	신영숙
민중의집	지역 사회운동주체(개인, 단체)들의 네트워크 활동	정경섭
토끼똥공부방	지역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방과후사업	문재윤
환경과사람	음식물쓰레기 100%줄이기 홍보	임용호
지금여기에	유죄, 무죄 판결에 이어 상담치유에 이르기까지의 기록 정리	이명춘
사사로	소외계층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대상 무상 외국어 교육사업	김설예
상록수	장애인재활교육사업	조정현
드림빅연구소	저개발국 공동체마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연구	강 철
한국재료미술연구회	우리 미술의 뛰어난 전통 재료에 대한 연구 및 학술 활동	이승철
청년평화센터 푸름	평화운동 전개를 위한 평화민주교육, 워크숍 모임	정혁
상암DMC봉사단	사랑의 밑반찬 배달사업	정선화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사)	영상미디어교육 종사자의 정보 교환과 의사 전달 역할	이상훈
한국모금가협회	모금가 및 모금활동의 표준 및 윤리성 확보	김형식
트리플에이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사업	김지민
(사)한국큐레이터연구소	큐레이터전문 인력 양성	한미애
서울시민정원사회	도시녹화, 정원조성, 공원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정춘미
굿브리지	어린이 청소년 문화와 재능계발을 위한 교육	정래욱
환경을사랑하는꽃섬문화원	꽃섬 등 친환경 문화부흥 프로그램 기획	백양오
문화로놀이장	시민사회의 문화적 환경만들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안연정
한국대중음악상선정위원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기획 및 제작	김창남
하품	일자리창출을 위한 콘텐츠 기획사업	박경필
한국실험예술정신	매년 정기행사로서 국제적 규모의 한국실험예술제 개최	김백기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도덕성회복운동	최철학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육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박혜란
클럽문화협회	지역문화축제주관 및 클럽데이 축제 기획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디지털 시대의 도시문화 만들기, 지역문화개발 활성화 등	최정환
홍익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학부모, 학생의 건강한 의식함양캠페인	정영애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독서활동 지도 어린이책 연구	이주영
국제문화교류협회	한국의 문화, 역사, 문화제, 국토, 영토, 역사적 문헌발굴보전	장광환

(사)한국아이티전문가협회	정보기술에 관한 기술발전 및 정보교환	김연홍
대한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일반관객 대상 대안영상 미디어극장인 아이공 운영	김연호
(사)여성이만드는 일과미래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김인선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서울특별시지부	전몰, 무연고호국영령모사/애국안보의식강화교육	김영택
글로벌여성커뮤니티	국내 여성결혼이민자 취·창업 교육 및 지원활동	이미경
마음이가까운이웃들	독거노인대상 반찬나눔, 김장나눔, 낚은집 수리 등 정기 봉사활동	전우주
시민안전연대회의	시민안전(초기대응) 정책연구 캠페인 교육사업 및 학술연구	나성수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서울)	지역사회 교육운동의 보급	홍승표
한국인권재단	인권교육 및 인권연구사업	고광현
위메이저	고등학교 방문 전공 강연회	최원재
컬처그라운드	해외 문화교류 및 문화전파 사업	김명진
유쾌한 섹슈얼리티인권센터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의 성교육, 성상담	남승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한국 내에 조선학교 존재를 올바르게 알리는 활동	권해효
바라봄	소의계층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위한 사진 촬영 재능기부	나종민
(사)희망레일	한반도 및 시베리아 인문학강좌	성유보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문제 및 사회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문유진
(사)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 캠페인 활동	임순례
아름다운배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사이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두드림 운영	고원형
비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및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운영	문성준
텃밭보급소	생태순환농법(도시농부학교, 텃밭보급원 교육과정 운영)	안철환
시민과미래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소양, 지식, 덕목 등에 관한 연구	황인상
공공미술 삼거리	문화예술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양철모
마포나눔봉사회	지역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및 의식주 해결 노력을 위한 자원봉사	김동수
소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정책연구 및 정부, 기업과 소비자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학태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이주영
청소년폭력여학생선도협의회	청소년폭력여학생 선도방안 연구 및 시행	박기원
마포희망나눔	소의계층에 대한 지지, 지원활동	정달현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정책연구,의회감시,교육 등 제반활동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실현	김성섭
마포구 녹색자전거봉사단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박수자
함께하는시민행동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교육	김주일
녹색교통운동	도시, 교통, 환경 관련 조사연구	조강래
고래동무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 책값 후원회원 모집	이은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원을 위한 권익실천사업	김종용
희망제작소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정지강
경의선 숲길지기	경의선숲길을 위한 조사, 연구	황주상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라디오방송국 운영, 미디어교육사업	송덕호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마포구회	열악한 시설에 대해 집수리 및 위생 냉·난방설비 시설무상점검	임성춘
서울서부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오숙
사람과마을	지역복지, 환경, 교육,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박홍섭
KIN(지구촌동포연대)	각국동포교류사업, 동포사회및지구촌공동체 관련 교육홍보 사업	배덕호
따비에	미얀마 현지 및 해외 난민 아동교육 지원 사업	정보임
언니네트워크	사이버스페이스에 여성주의적 공간구축 및 확산	이유나
또보자마을학교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	박종숙
개똥이네 문화놀이터	부모교육 및 마을교육 지원 및 연구활동	양희경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마을 청소년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이종훈
동아시아화해와평화의목소리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민간활동	김철
프로젝트이리	문학과 관련된 공연행사의 기획 및 제작	윤여영
뷰티아프리카	케냐의 슬럼여성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 (뷰티 아프리카) 시행	박윤희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한강보호특별위원회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선전사업	장계수
바른인성교육실천협의회	건강복지사업(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불우청소년, 소외계층 지원)	김선경
김복동의 희망	남, 북, 재일동포 청소년, 청년 장학사업	윤미향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개발보급,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및 운영	양희중
기적의책꽂이	기부도서 접수 및 관리	서승용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안예술축제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개최	오성화
생명환경 자연보호실천회	생명나눔의 장기 기증 운동	이차환
대한민국지식포럼	산업과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류	임동학
손잡고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배춘환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인권신장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이일영
경제지식네트워크	경제지식 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이병태
문화나눔미	양질의 공연을 위한 연습 공간 및 공연 물품 무상 대여 사업	이태구
밝은희망봉사회	독거노인 집수리봉사 및 생활지원	소영철
5.18부상자회서울지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을 위한 선양사업	김광중
전쟁없는세상	양심적 병역거부자 상담 및 지원	박승호
북한이탈주민 글로벌교육센터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과 연합하여 외국어 교육을 제공	이은구
레인메이커	아동 청소년 대상 주제별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정백
(사)국가문화발전위원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진흥을 위한 인재발굴 및 인프라구축	김순옥
코리아 글로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헌정사 기행	조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학술조사 연구	손봉숙
나눔과 나눔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가정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	배안용
사랑말국제자원봉사단	해외 자원봉사 사이트 번역, 교류사업 및 자원봉사 홍보	석화옥
(사)미디어연대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제반 사업	정준성

대한농아인노인회	무의탁농아인을 위한 전반 사업	오재근
국제학생교류기구	청소년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박지현
피스프렌드	아프리카 전문 자원봉사 활동	황학주
(사)일상예술창작센터	시민, 예술가, 전문가의 생활 창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김영징
일상예술창작센터	시민, 예술가, 전문가의 생활창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김영등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부학교	민동욱
(사)재미있는재단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고민정
국제워크캠프기구	국제자원봉사활동 및 교류 증진	염진수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 마포구협의회	의식개혁 실천운동	홍성기
한국노인복지전문가협의회	전국민 경로,효도교육사업및 경로현장 보급 사업	박계승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공방민들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에 의한 축제 개최	송인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신용규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제시와 이를 위한 사업	전상봉
한국통일교육협회	사회 통일교육 및 이와 관련된 사업	김남열
환경사회책임연구소	환경정책 연구 조사 분석	황상규
국제전문인도시건축봉사단	서울시내 저소득층을 위한 건축시설 개선사업 지원	천근우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구지부	자유민주주의 항구적 옹호발전, 민주시민 교육 등	이길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심신장애아동 등 의료비지원 및 재활교육사업, 수련사업등	이상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의 발견치료, 예방에 관한 제반사업 등	김석산
한국낙시교육원	낙시에 관한 기본 이론과 실습, 안전교육	이춘근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창작지원	김형중
VJ시민방송단	인터넷 방송을 통한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임택재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광복선열의 독립정신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기념행사	승병일
(사)베트남참전전우회	베트남전에 관한 기념사업,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김만수
상록회	노인복지사업	이달형
한국로하스협회	로하스(LOHAS ,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확대	김응석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생존자 상담, 지원활동	이미경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서울시지부	소비자보호, 환경, 보전사업	박만인
반디플러스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 영어연극 교육	임재학
초록교육연대	초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유금자
(사)한.강.길	한강 둔치길 조성 등	신응식
독립유공자 유지계승 유족회	국가 안보의식을 통하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하는 사업	김삼열
생태공감	자연자원 현황 연구조사사업	김명철
(사)자연의벗연구소	국제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시행	이시재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한 사업, 정의와 평화의 구현을 위한 사업 등	김형태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별첨자료 2] 서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이름	사업	대표자
한국건강운동연구지도협회	과학적 건강운동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김청훈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오문영
한맥문학가협회	월간 「맥문학」 발전책을 강구	김영선
한국농구발전연구소	다문화, 장애인, 시설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스포츠단 구성 및 운영	천수길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오경석
사단법인 노동희망	노동법률 지원사업	김장민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	주민운영회 구성과 운영 컨설팅 서비스	장제모
마더하우스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가정 공동체 형성을 통한 구제 사업	최영아
서울장애인 생활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및 동호회 육성지원	윤석용
한국효교육문화연구소	효 문화 장려 및 교육	이현용
사단법인 스파인2000	장애인생활지원사업	왕태운
(사)한민족예술문화진흥협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이학철
서울교육지원센터	청소년들의 올바르고 건전한 영상교육에 대한 공유와 확산활동	김순임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	환경보전의식 및 실천교육 실시	정락윤
사단법인 희망도레미	전문직 은퇴시니어들의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정진문
화장실문화 시민연대	화장실문화 시민운동	표해령
돈의문에너지캠프	대체에너지의 공신력 제고와 발전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사업	김선구
도시樂 & TALK	각 대학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위한 무료식사제공	박인성
평화통일연구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강정구
5.18 서울기념사업회	5.18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추모사업	최병진
국제기후중요시민(ICE) 네트워크	인권과 커뮤니티 기반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사업	이정배
서대문 바른선거시민모임	바른선거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활동 및 계도홍보	인태원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음악 치료 연구를 위한 연구정보의 수집, 교환 및 배포 활동	정현주
드림메이커(DREAM MAKER)	청소년, 청년, 성인 대상 자아탐색 작업	주상원
평화인권 연대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사업	손상열
서울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지역아동센터(공부방)활성화를 위한 아동 및 지역주민 복지사업 등	김미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회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이념과 종교를 초월한 연대	유경재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 인권개선과 교육, 국내외 관련 단체와 교류 등	신경하
(사)평생교육진흥연구회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김광길
한벗 장애인 이동 봉사대	휠체어 사용장애인의 사회 활동촉진을 위한이동 지원	백진양
에스.티효립원	어려운노인돕기사업	김동금

과학도서 아카데미	과학기술 대중화 방안 구현, 과학도서 출판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이용수
매비우스	대중매체 비평 및 미디어 교육	김미애
한국핸드메이드협회	공예 전문인력 개발, 여성인력개발, 공예인 권익보호 등	문석만
열린치과의사회	치과의료봉사에 관한 사업	정돈영
초록실천단	에코라이프의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최문석
대한시니어 숲해설가클럽	초중고 학생들에게 숲 현장 체험학습	전성장
국민통합운동본부	시민의식개혁운동(시민강좌)	정훈
우리아이지킴이	우리아이 지킴이 운동	신정수
학사연	소외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여성멘토 활동사업 전개	노재연
민족교육문화원	민족문화 및 의식교육	박종오
(사)유라시아문화포럼	학술대회 및 문학인 대회 개최	홍태식
공명선거 실천 시민연대	정책선거 실현, 흑색선거 근절, 금품향응선거 척결	이청영
한길봉사회	무의탁노인을 위한 급식사업 및 재가 노인복지사업	김종은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협회	운동재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육성, 진흥에 관련된 사업	서장우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노인가정 및 양노원 위문활동, 불우어르신 보살펴드리기	강성규
패밀리아가정복지원	건강가정 가족구성원 상담	장금례
그룹 아나야	국악 이론의 연구, 창작, 통섭 및 공연 프로그램의 발굴 및 개발	민소윤
한국그레이하운드경주	해체가정	임경희
한울타리 복지회	해체가정, 결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등	임은순
국제평생교육센터	외국인 다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변명선
한국교통시민협회 서부지부	국가교통발전과 시민교통 안전에 기여하는 지도, 계몽, 홍보 등	장환수
사단법인 태평양시대위원회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제휴, 보급	강홍구
이화여자대학교 전문직업개발원	국제관련업무(사무 및 국제회의)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조계숙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박창길
다솜메아리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문화향유권 지원 공연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정갑
이화여대 호스피스	말기환자 가족 및 유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사업	최화숙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서울지역본부	장기기증운동을 통한 국민서로간 사랑나눔, 국민화합과 건강증진 기여	김대섭
평화나눔회	국제 인도주의의 확산과 평화교육	조계국
중앙아시아 성형외과 교육단체	의료수술 자선	김용욱
한국여성사학회	연구 및 조사, 학회 및 학술도서의 발행	정현백
서대문주민 참여예산 모임	서대문 참여예산학교 운영	오민조
카야(구 행복나눔세상)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반찬나눔사업	최순태
함께하는 도농원	도시농부교육	정희용
함께하는 도농원	도시농부교육	안종수
유스클럽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기획 및 해당 정보 제공	손민영

한국색채심리치료협회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무료색채심리진단	김성자
서울지역 한자교육연구회	한자교육 자원봉사 활동	신현대
나라사랑청년회	서대문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반찬봉사활동	김주현
흰돌 복지회	출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 및 제공	정해두
프리메드	사회적 소외계층이 누리는 의료 혜택을 증진을 위한 직접적 사업	류혜민
한빛사랑후원회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지원	유철주
(사) 탁틴 내일	청소년성상담, 성교육, 청소년문화활동	최영희
사단법인 한국코다이협회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음악교류 및 연수	유병무
한국NVC센터	비폭력대화(NVC)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썬어 캐서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운동의 데이터베이스구축,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운영 등	이종희
진보교육연구소	교육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사회적 실천	천보선
정보공유연대 IP Left	현실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입장발표, 문화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 등	남희섭
학벌없는사회	학벌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실천	장혜옥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소외계층을 위한 반찬나눔 봉사활동	김혜미
한국체험학습교육협의회	평생교육을 활용한 체험학습 강사 양성교육	이경순
삼분의이	장애, 비장애의 아동 특성 및 연령에 맞는 예술 프로그램 개발	서현주
너머서(Beyond It!)	사회조직 내부의 성차별 극복과 양성평등 문화 운동	전미옥
아름다운 세상 어울림	청소년 보호사업	김인자
작은소리학교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예술 교육사업	이정연
조선족연합회 우리집	재한조선족동포의 법적, 제도적 권익 향상 활동	유봉순
로사이드	작가 발굴	고재필
문화촌	회원 상호간의 협력 활동	권오철
한국참사랑봉사단	홀몸노인 및 소외계층 노인가정 쌀, 연탄, 김장 등 지원	김창섭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별첨자료 3] 은평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이름	사업	대표자
몸깨침	몸의 생명가치를 깨닫기 위한 몸의 인문학, 몸학의 연구 및 교육	황정현
삼각산역사문화보존회	삼각산의 역사문화 연구 및 문화축제 활동	김옥희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주민주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선경희
봉찬문화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의 영산재를 년 3회 시연	김호주
은평학부모네트워크	교육관련 강좌, 각종 교육정보 공유, 상담활동	박은미
S&Y도농 나눔공동체	도시농업관련 봉사활동	문대상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서울시지부	자원절약, 환경보전, 문화시민 자원봉사	서영수
은평생활환경실천단	환경분야(대기,수질, 폐기물)자체 봉사활동	조귀호
한국미술학회	미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공동조사 사업	임종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 지위와 권익 향상에 관한 사업	유희숙
슬로푸드문화원	미각교육, 미식교육, 식생활 교육, 도시농업교육 등 교육서비스업	김원일
서울시 교통장애인 협회	교통사고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재활상담 및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사업	김진호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모모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아영
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 복지 관련 실태조사, 진단, 컨설팅, 시설지원 및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최우진
NPO교육센터	비영리분야 임직원 대상 실무 교육 및 컨설팅	김종민
한국청소년동아리서울연맹	청소년 및 청년 동아리 활동 육성 및 지원 사업	류형신
네꿈내꿈	아동을 대상화하지 않는 모금사업 및 기부	민지혜
재단법인 시민방송	시민주체의 방송발전 기여를 위한 연구 및 지원 활동	민경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박옥순
아트앤퍼블릭[구, 달려라피아노]	소외 계층 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피아노 나눔 캠페인 사업	정석준
문화예술NGO 예술과시민사회	건강한 비판적 담론의 활성화 사업	오상길
난민인권센터	난민에 관한 법률적 보호 및 제도개선	김규환
대안교육연대	청소년의 공동체 문화개방 및 청소년의 개성중시, 자기 개발을 위한 인성교육	태영철
인권도시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인권증진 정책개발 및 인권행정 도입 지원	김학규
톨링주빌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의 매입 및 무상양수	설은주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인권증진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김영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회적 소수자 법률지원(비영리)	조혜인
우리가그린(green) 은평네트워크	환경보전에 대한 조사·연구	홍순동
비영리IT지원센터	NPO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이영환
프렌드아시아	한중양아시아 교류진흥사업 및 청소년 장학사업	박강윤
우리동네 복지사 사회적넷	사회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지원	권영옥
대한삼보연맹	삼보대회 개최	문종금

은평노동인권센터	노동자인권상담사업등	임혜숙
은평구사회적경제제협의회	사회적기업 복합매장인 36.6 위탁운영	김은복
시민119산악구조대	산악사고 예방활동 및 응급처치	김진미
비영리민간단체 한국패션타투협회	타투·헤나의 청년 해외일자리 취업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	임보란
더좋은 은평포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태 환경 정화 및 자원 봉사 활동	김성호
서울시장애인부모회	장애인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	심정신
한국범죄방지사업회	범죄방지(지도)사 교육훈련 및 양성	김용준
(사)한국어문능력개발원	어문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학회, 세미나, 연수 개최	류순희
(사)한국동화구연지도사 협회	아동문학의저변확대 및 구연 낭송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성현주
아시아미래지식인포럼	미래의 아시아 지식인들을 네트워킹하여 공존, 공생의 초석 마련	배경임
건우나눔자리	장애인 야외활동 보조 및 지원	강준기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 조사, 연구사업	김명실
열린문화공간KTOP	예술 활동,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	이성옥
한민족통일여성 서울시협의회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여성역량개발, 여성들의 통일의지 제고 홍보계도활동	문영자
청소년대안공간 돌음	학교중도탈락 지역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김성미
HS Center	청소년 문화활동사업 지원, 지도자교육사업	우수명
은평시민넷	은평구 민원 및 구의회 모니터링활동	이용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기술훈련 및 교육	최용기
남북문화교류협회	전통문화 예술인 발굴 및 교류	김구희
미래사회자원봉사연합	우수 자원봉사자 사례 발굴 발표	이찬백
초록장애우이동봉사대	장애인병원 이동봉사, 장애인에 대한 연 6회의 야외현장학습	오주영
삼운회교통봉사대 서울시본부	교통사고로부터 재산과 생명지키기	심태현
한백아카데미	노인정방문, 소년,소녀가장돕기, 무의탁노인방문	박숙자
한국인문예술평생교육원	인문학과 예술학 관련 평생교육 추진 및 연계된 전통문화 복원	박선식
한국자유총연맹 은평구지부	자유민주주의 항구적 옹호발전, 민주시민 교육	이도영
교육환경 개선 실천운동 협의회	청소년 보호법 실효화를 위한 활동	권영오
서울환경정화운동본부	환경보전보호과 환경정화 운동, 생태계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운동	정일상
마을n도서관	지역 독서문화 운동 및 도서관 활성화 사업	이미경
은평사랑나눔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김지숙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장애인 전문인교육, 세미나 장애인정보지 발간, 장애인치료, 재활 서비스 교육 등	김동현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	함께 나누는 공동체, 기초질서지키기, 깨끗한 환경도시 건설,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이광희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은평구지회	문화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 환경보전	정명락
한강맑히기 문화시민회	한강 맑히기 선상 예술 잔치	정인관
(사)한우리 독서문화 운동본부	독서진흥을 위한 연구, 홍보, 출판사업	박철원
소리디	문화 기획을 통해 사회의 상처를 보듬는 사업	이상민

장년창업공유공동체	서울시 장년 창업창직 역량 학습 및 그 공유사업	김정숙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유영우
아름다운서당	회원의 관리 및 자원지도 사업	서재경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서울지부	교통사고예방 홍보 및 캠페인	김진호
아프리카를 위한 좋은학교 만들기	아프리카 지역내 교육사업, 학교와 위생시설 건설 및 운영, 어린이 자매결연 사업	김연지
(사)더불어사는사람들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에 대한 창업 경영 지원	전양수
생태보전 시민모임	생태계보호, 생태계교육 사업	최준호
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름	지역리더 및 시민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전문가 양성	조계학
은평향토사학회	향토문화의 연구, 조사, 보급	김광수
은평구 바른선거를위한 시민의모임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제도 및 홍보	문성현
아.나.기코리아비엔비	아줌마능력개발, 사회능력향상, 민박확산 참여운영	김용숙
독도수호국민연합	독도사랑, 독도수호 운동	이근봉
즐거운반딧불이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인문교육	조영권
보아스아동청소년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상담 및 교육사업	신길순
새천년남북통일운동본부	국내외 동포의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의지 확산, 남북한 학술 문화 예술 관광 교류	주명주
나눔의등지	무료급식소 운영	권주화
(사)대한장래인협회	다문화가정 등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장제 지원	이상재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센터 이념보급 사업	김선윤
엄마 품속의 천사봉사대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부모(친정엄마손길) 결연맺기	곽경희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교육연구원	평생교육 문화교육 시설 운영	오수원
서울사랑봉사단(舊서울국학평화봉사단)	국내외 재난민 구조사업	김태연
꿈꾸는다락방	청소년 카페 청소년다락방	김세희
나눔·봉사 28년6개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등 지원사업	김봉식
건강마을살림이	지역여성, 아동,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민영
민족상생평화통일연합	평화통일 구현을 위한 통일관 정립	조양엽
은평e품앗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재능, 품, 물품, 서비스, 재화 등을 공유	차혜옥
노년기 희망봉사단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정신과 가치함양 및 봉사활동 전개	용수택
좋은학교만들기네트워크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	손달익
환돌회	재소자, 출소자 돕기	조규환
세계평화유지군국가유공자연합 서울진우회	조국의 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국민정신의 공감대 계도사업	김유경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 홍보와 교육	강윤재
행복나눔플러스	어린이 안전사고 조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학술연구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최희광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019년

서북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발행일 2019년 11월 29일(SNPO 2019-B-010)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 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 화 02-734-1109

전 송 02-734-1118

메 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npo.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NC-ND(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